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태 현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 성역할 정체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

201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우 미 향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 성역할 정체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

김 태 현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우 미 향

인 준 서

우미향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가족 형태의 변화 중 청소년기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사회적 적응의 영향 요인을 살펴보는데 의의가 있다. 사회 변화로 인해 한부모 가족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부모 가족을 역기능적인 가족으로 분류하고자 가족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적 풍토에서 벗어나 한부모 가족의 가족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기는 가족 내·외의 환경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성장 발달해 가는 과정으로 가정, 학교, 또래 및 지역사회 자원들을 통해 사회적 상황에 직면하여 그 사회의 표준에 따라 행동하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킨다. 따라서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가 사회적 적응을 이루는데 자아개념인 성역할 정체감 유형 및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연구 대상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한부모와 그들의 청소년 자녀로 부모 200명, 자녀 200명, 유의표본 총 400명을 분석하였다. 측정 도구로는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정진경(1990)이 개발한 한국형 성역할 검사(KSRI: Korea Sex Role Inventory) 문항을 사용하였고,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적응은 김홍규(2004)가 개발한 심리성숙도 및 사회성숙도 진단검사의 문항을 참고하여 질문지를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분석은 SPSS 12.0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 t-test, ANOVA, 중다회귀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 가족의 성역할 정체감, 자기효능감, 사회적 적응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은 미분화, 양성성, 여

성성, 남성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은 미분화와 양성성이 유사하게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남성성, 여성성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적응에서는 청소년 자녀와 부모 모두 점수가 중간 값 이상으로 나타나 중간 수준 이상의 심리적, 사회적 건강성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이 여성성, 양성성인 집단이 남성성, 미분화 집단보다 사회적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자기효능감이 상(上)인 집단이 하(下)인 집단보다 사회적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역할 정체감, 자기효능감, 사회적 적응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역할 정체감은 자기효능감, 사회적 적응에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적응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다섯째,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성역할 유형이 양성성인 집단 및 청소년이 지각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부모의 사회적 적응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적응에 최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양성성의 성역할 유형과 부모의 사회적 적응력이었고, 그 다음은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자기효능감, 고등학생, 경제 수준 순이었다.

이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양성성 유형과 청소년 자녀의 자기효능감과 부모의 사회적 적응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문제 제기	1
2. 연구의 목적	5
II. 이론적 배경	6
1. 한부모 가족	6
1) 한부모 가족의 개념	6
2) 한부모 가족의 현황 및 특성	8
3)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특성	10
2. 성역할 정체감	11
1) 성역할 정체감의 개념 및 유형	11
2) 성역할 정체감 발달 이론	15
3)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	18
3. 자기효능감	19
1) 자기효능감 개념	19
2) 자기효능감 발달 과정	20
3)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자기효능감	24
4. 사회적 적응	26
1) 사회적 적응의 개념	26

2)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	27
3)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 영향 요인 고찰	30
III. 연구 방법	35
1. 연구 문제 및 연구 모형	35
2. 용어의 정의	37
3.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41
4. 조사 도구	46
5. 자료 분석	53
IV. 결과 및 해석	55
1. 조사대상자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 자기효능감, 사회적 적응의 경향	55
2.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사회적 적응의 차이	60
3.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따른 사회적 적응의 차이	61
4.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 자기효능감, 사회적 적응의 관계	63
5.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65
V. 논의 및 결론	72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 표 - 1 >	Bem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	13
< 표 - 2 >	성역할 정체감 발달 이론	17
< 표 - 3 >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일반적 배경	42
< 표 - 4 >	한부모 가족 부모의 일반적 배경	44
< 표 - 5 >	성역할 정체감 척도의 구성 및 신뢰도(청소년)	48
< 표 - 6 >	성역할 정체감 척도의 구성 및 신뢰도(부모)	48
< 표 - 7 >	성역할 정체감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	50
< 표 - 8 >	자기효능감, 사회적 적응 척도의 구성	52
< 표 - 9 >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 자기효능감, 사회적 적응 경향	57
< 표 - 10 >	한부모 가족 부모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 자기효능감, 사회적 적응 경향	59
< 표 - 11 >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사회적 적응의 차이	61
< 표 - 12 >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따른 사회적 적응의 차이	62
< 표 - 13 >	성역할 정체감, 자기효능감, 사회적 적응의 관계	64
< 표 - 14 >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	67
< 표 - 15 >	배경 변인, 성역할 정체감, 자기효능감, 부모 변인이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71

그림 목 차

<그림 - 1> Bandura의 지각된 자기효능감 모델	24
<그림 - 2> 연구 모형	36
<그림 - 3> 중앙치 반분법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유형 분류	49

1. 서론

1. 문제 제기

21세기의 많은 변화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가족 형태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즉, 산업화 및 도시화와 함께 사회경제적 구조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핵가족 이외에도 부부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입양가족, 노인 단독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가족 유형 중에서도 한부모 가족은 전체 가구 대비 한부모 가구가 8.6%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09). 한부모 가족은 단순히 가족 구조의 변화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한쪽 부모의 부재로 인한 가족 기능의 변화, 대인관계, 자녀양육 문제, 남녀역할 재조정 문제, 모·부자복지 문제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한부모 가족 자녀의 경우는 한쪽 부모의 부재로 인해 사회적 통념에서 오는 압박감과 열등감, 그리고 가족내 역할 구조상의 문제로 정서적 불안과 심리적 갈등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부모 가족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대한 사회적·학문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적 적응은 우선 개인의 적응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내적 상태와 외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에 있으며, 부모와 자녀간 상호작용의 측면이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설명한다(이미선, 2001). 그러나 한부모 가족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대한 연구들은 이들 자녀의 긍정적 적응 관점에서의 측면보다는 사회적 부적응의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이건용(1994)의 연구에 의하면 한부모 가족 자녀의 경우, 양육과 보호를 받아야 할 성장 과정에서 한쪽 부모의 부재로 인한 역할 갈등 및 사회화의

갈등, 심리적으로 동일시할 대상의 부재,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정서적 결핍으로 인한 대인관계 결여, 비행과 일탈의 접근 용이성 등 많은 어려움과 부적응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아산사회복지재단(1997)의 연구는 부양자나 남편으로서의 역할 혹은 부인이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한부모 가족 자녀는 역할 구조상의 변화를 가져와 가족성원간의 심리적, 정서적 관계와 역할 구조의 재조정 및 적응 과정에서 긴장이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최근의 한부모 가족에 대한 연구들 상당수도 한부모 가족 자녀와 일반가족 자녀의 특성을 비교하여 부정적 특성을 발견하는 연구들이(김성연, 2005; 안민주, 2004; 이광희, 1998; 이명순, 2006; 정소성, 2004 외) 많다. 이러한 연구들은 단지 가족의 구조적 결손이 자녀의 부적응적 발달을 초래한다는 견해로 지나치게 가족의 구조적인 면에만 관심을 가짐으로써 자녀 각각의 개별적인 차이 즉, 개인마다 주어진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의 이용 가능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한부모 가족이라는 상황이 다른 스트레스 상황과 마찬가지로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도 한부모 가족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자녀들의 부적응 현상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기능적인 면과 자녀들의 강점 및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도 양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역할 행동에 대한 정체감의 확립 및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하고 끈기 있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신념의 정도로 사회의 적응 능력이 결정지어질 수 있다.

Raschke와 Raschke(1979)는 자녀가 한부모와 살게 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갈등과 부모의 불행이 따로 혹은 함께 작용함으로써 해로운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한부모 가족을 가족 구조의 변화로 보거나 청소년기의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기존의 관점과는 달리 최근에는 한부모 가족을 가족 환경의 변화로 보는

관점이 제기되면서 “가족 과정(family process)”에 초점을 두어 한부모 가족을 하나의 가족 형태로 인정해야 한다고(Hetherington, 1999) 주장하였다.

한부모 가족 자녀의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낸 선행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자녀의 개인적·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개인적·심리적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 책임감, 탄력성 등을 환경적 요인으로는 가정의 분위기, 가족 구성원간의 긍정적인 관계, 학교 환경, 교사 및 친구와의 긍정적인 관계 및 사회의 경제적 지원 등을 규명하였다(오은순, 1996; 차순호, 2003; 김현경, 2003).

이와 같이 한부모 가족 자녀의 적응과 관련하여 학자들에 따라 강조하는 면이 각기 다르나 긍정적인 가족 관계는 개인 자신의 능력을 더욱 발휘하게 되며, 보다 원만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서적·인지적·사회적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로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자신이 극복할 수 있는 것과 필요한 것에 대해 보다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Papalia, 1991; 서지영, 2002, 재인용). 따라서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회적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먼저 한부모 가족 자녀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부모 가족 자녀들은 부모의 부재로 인해 성역할 습득 기회의 부족으로 성역할 정체감 형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김성연, 2005; 최선화, 2000). 그러나 구조적인 역할 습득의 기회가 부족할 뿐 바람직한 가족 기능 및 주변의 적절한 지지는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김경옥(1988)은 성역할 정체감에 대해 개인의 자아개념 및 심리적 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인간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한 좋은 지표가 된다고 보고하였다.

김영희(1990)의 연구에서도 올바른 성역할 정체감을 획득한 개인은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 자아실현성, 도덕성 발달에 유능한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어 성역할 정체감은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이해하는 주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을 살펴보는 것은 그들의 발달과 심리적 건강 및 사회적 적응을 설명하는 주요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성역할 정체감이 자아개념 및 자아정체감을 설명하는 주요 개념이라 볼 때, 성역할 정체감은 자아개념과 관련된 주요 개념인 자기효능감과도 연관을 가진다. 최미이(2001)는 개인의 역할이 개인의 성취동기를 결정하므로 개인의 성역할 정체감이 다양한 상황에서 성취동기를 결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주요 동기이론인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개인의 신념으로 상황에 따른 구체적 자신감의 강도를 의미한다. 또한 현정환(1993)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할 것인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끈기 있게 대처할 것인가 등 인간의 모든 행동이 그 사람의 자기효능감 정도에 따라 좌우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성역할 정체감과 자기효능감은 부모의 부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부모 가족은 가족발달에 따라 상황별 적응과 대처방안을 필요로 한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 자녀들은 일반가족과 다른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성공 요인의 탐색은 증가하는 한부모 가족의 성장과 발달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들이 새로운 가족 구조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데 유용한 개입의 방향 및 접근 방안을 찾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자아개념의 일부인 성역할 정체감과 자기효능감이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경우, 사춘기 개인에게 요구되는 정서적, 신체적 변화에 대한 적응, 자체 능력, 자립적인 생활, 학교생활 등의 발달 과업과 함께 부모의 사별 또는 이혼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인 스트레스원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이란 새로운 환경에서 기능의 평형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은 청소년들이 유능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생활하면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성장기에 있는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은 환경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특성 요인에 따라 적응 상태에 더욱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본다. 그러므로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성역할 정체감을 형성하고, 스스로의 존재 가치, 안정감,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외부의 압력에 대처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개발시켜야 한다. 이에 성인기의 적응 기반이 되는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을 이루는데 성역할 정체감 및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의 목적을 지닌다.

첫째, 한부모 가족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 자기효능감, 사회적 적응의 전반적 경향을 파악한다.

둘째,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사회적 적응은 차이가 있는가 규명한다.

셋째,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따른 사회적 적응은 차이

가 있는가 규명한다.

넷째,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 자기효능감, 사회적 적응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규명한다.

다섯째,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규명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한부모 가족

1) 한부모 가족의 개념

한부모 가족은 편부모 가족, 편부모 가정, 편부모 가구 등으로 사용되었지만 이는 문제 가정이라는 부정적이고 결손의 의미가 강하여 보다 긍정적인 의미로 인식하기 위해 바뀌어진 개념이다(이소희 외, 2003). 한부모 가족(single parents family)은 ‘부모 중 어느 한쪽의 사망, 이혼, 유기, 별거로 인해 양친 중의 일방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Gioyannoni & Brillingsley, 1995). 한국여성개발원(1984)은 한부모 가족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서 미국의 사회사업 백과사전에서 규명하고 있는 정의를 참고하여 ‘부모 중 한쪽의 사망, 이혼, 유기, 별거로 인하여 편부 혹은 편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원인의 범위를 한정하여 한부모 가족을 정의하고 있다. 조홍식 외(2008)에 의하면 한부모 가족은 ‘부(父)나 모(母) 중에 한사람이 부재중이라 한사람이 단독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4조의 의하면 한부모 가족이란 ‘모(母)가 세대

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하는 모자가족과 부(父)가 세대주인 부자가족' 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여성부, 2009)

한편, 한부모 가족은 결합 형태에 따라 부(父)와 자녀로 이루어진 부자가족 (male-head family)과 모(母)와 자녀로 이루어진 모자가족(female-head family)으로 나눈다. 모자복지법에 의하면 모자가정은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18세 미만(다만, 취학 시에는 20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을 말하고, 부자가정이란 '부(父)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다만, 취학 시에는 20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을 말한다. 따라서 모자복지법상에 규정된 한부모 가정은 '모(母) 또는 부(父)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한부모 가족을 정의함에 있어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의 특성을 포함하여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각기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 하나의 합의된 정의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한부모 가족에 대한 명칭은 통일된 정의가 없어 한부모 가정과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구 등 각기 다르게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가족복지의 관점에서는 한부모 가족으로, 모부자복지법에 근거한 행정적인 관점에서는 한부모 가정으로,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에서는 조사 단위를 한부모 가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복지의 관점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명명하고, 연구 대상자가 사별이나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한부모 가족을 '사별이나 이혼으로 인해 양친 중의 한쪽과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한부모 가족의 현황 및 특성

한부모 가족의 현황을 살펴보면, 1995년 한부모 가구는 전체 가구 대비 7.4%에서 2000년 7.9%, 2005년 8.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 모자 가구는 79%, 부자 가구는 21%로 모자 가구가 부자 가구에 비해 4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부, 2009). 한부모 가족 형성 요인별 현황으로 살펴보면 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구는 1995년 54.8%에서 2000년 44.7%, 2005년 36.6%로 줄어든 반면, 이혼에 의한 한부모 가구는 1995년 12.9%에서 2000년 21.9%, 2005년 29.1%로 나타났다(여성부, 2009). 이러한 경향은 과거 한부모 가족의 주원인이었던 사별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 최근에는 경제의 어려움과 가치관의 변화로 이혼 또는 별거가 한부모 가족 형성의 주요인이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되는 이혼율의 증가로 한부모 가족의 발생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부모 가족의 증가는 가족의 구조와 기능 변화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져야 함에도 한부모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 양육 및 교육문제, 심리적 문제, 대인관계 문제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숙 외, 2000; 문선화, 1999; 오승환, 2001). 한부모 가족의 특성은 그 양상이 다양하여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경제적, 사회적, 자녀양육 및 교육, 심리사회적인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위주로 고찰하고 있다.

첫째, 한부모 가족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경제적 문제이다. 부자가족은 모자가족에 비해 경제적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으나, 자녀 양육비나 탁아 비용의 증가, 미숙한 가계관리로 인한 생활비 증가 등 간접적 요인에 의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미숙, 2000). 모자가족의 경우 부(父)의 부재로 인한 소득원의 상실은 소득의 감소를 가져오며, 여성의 사회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모(母)는 생계를 위하여 취업을 하지만, 단순노동, 하위 서

비스직 등 저임금 직종에 주로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현주 외, 2001).

둘째,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한 문제이다(조홍식 외, 2008). 한부모 가족은 한쪽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온전하지 못한 가족, 무엇인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으로 낙인과 차별 속에서 살아간다. 최근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증가와 함께 이들 자녀에 대한 낙인은 한부모 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고, 이들이 성인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셋째, 한부모 가족은 자녀 양육 및 교육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부모 가족의 자녀들은 부모의 적절한 보호와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방임된 상태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 부자가족의 자녀는 모(母)의 부재로 인하여 부(父)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과 부적절한 대처는 자녀의 정서적 불안과 학교생활의 부적응, 방임과 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김인숙, 1998). 모자가족의 자녀는 부(父)의 부재로 인한 감독권 및 동일시 대상의 상실이 자녀에게 부적응이나 비행의 원인이 되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선애, 1984).

넷째, 한부모 가족은 심리사회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한쪽 부모의 상실, 가족 체계의 혼란, 부모-자녀 관계의 변화 등으로 성역할 정체감, 역할 모방, 초자아의 발달에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김성태, 1988). 특히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자녀들은 반사회적, 공격적 및 반항적 행동, 자기 통제 결핍 등의 심각한 행동 문제와 책임감 결핍, 인식 및 이해 능력의 결함 등 학교에서의 적응, 대인관계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정진영, 1993).

이와 같이 한부모 가족의 특성에 따라 한부모 가족 자녀들이 많은 문제들을 보이고 있지만, 그 원인이 한부모라는 사실 그 자체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한부모가 처해있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인지는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 가족의 적응적 관점에서 이들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도움을 주는 요인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3)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특성

부모 중 한 사람이 부재할 경우 청소년은 적절한 사회성을 발달시키기 어려우므로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는 우울, 불안, 사회적 철회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비행과 일탈, 반사회적 행동 등의 문제 행동을 경험하고, 학업 성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오승환, 2001). 한부모 가족 청소년들은 생활상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와 증가된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정서적인 문제와 학업 성적의 하락, 동료와의 대인관계 문제, 학교생활 부적응 등을 초래하며, 자아개념, 인지 능력, 도덕성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종기, 2005). 윤병철(1998)의 연구 결과에서도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문제를 크게 부모 역할의 상실로 인한 사회화의 문제, 심리적 동일시 대상의 부재, 대인관계의 문제 등으로 보고 이로 인해 비행 및 문제 행동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한부모 가족의 형태가 자녀의 성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한부모 가족 자녀가 양부모 가족 자녀보다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하여 회의적이며 자기를 무가치한 인물로 보고 종종 불안을 느끼고 불행을 느낀다는 보고도 있다(정희정, 2004).

또한, 정현숙(2001)은 한부모 가족이 된 유형과 관련하여 이혼에 의한 한부모 가족이 된 청소년의 경우, 이들이 성인이 되면 만성적인 무기력, 우울증, 자신감 결여 등의 심리적 문제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조기 결혼, 낮은 진학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부(父)가 부재한 모자가족 청소년 자녀의 경우, 사회성 발달에 장애를 가져오게 되어 성격 형성, 남아의 성역할 형성, 사회적 비행 등과 관련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父)의 부재는 부모와 청소년 모두에게 긴장을

초래하여 가족 관계에 있어 손상을 야기 시킨다. 따라서 아버지가 부재한 청소년은 가정 밖의 사회적 적응에 미숙하여 성인에게 의존적이며 심한 불안감을 나타내기도 한다(Hurlock, 1964; 김은정, 2007, 재인용). 모(母)가 부재한 청소년의 경우, 감정 통제의 결핍, 공격성 행동의 분별없는 표현, 죄의식의 결여, 인내심의 부족 등과 같은 정서적 문제와 학업 지도의 결여, 탈선이나 비행의 우려 등과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보고하였다(손병규, 2007). 조인희(2004)도 모자가족의 경우 지배성과 사회성, 안정성과 사려성에서 양부모 가족보다 낮게 나타남으로써 사회성 발달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부자가족 자녀는 양부모 가족 자녀보다 자아개념에 부정적 태도를 가지게 되고, 역할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송양숙, 2001). 최선애(1984)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자녀들에 대해 대인관계에서 억압적, 회피적, 충동적이며, 권위 의식에 대한 반항과 인간에 대한 거부감이 더 강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부모 가족의 경우, 부(父) 또는 모(母)의 부재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 자녀들은 심리사회적인 부적응과 비행, 학업 성취 부족, 대인관계 실패 등의 영향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에 비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연구 결과도 있어 해체된 가족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 요인, 사회적 요인, 양육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부적응 행동을 보인다 하더라도 해체 가족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보았다(오승환,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 가족의 기능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 한부모 가족의 청소년 자녀들이 긍정적이고, 사회의 전 영역에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한부모 가족의 청소년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성역할 정체감

1) 성역할 정체감의 개념 및 유형

인간은 남성과 여성 중 하나의 생물학적 성(sex)을 가지고 태어나며, 성역할(gender role)이란 ‘남성과 여성에 따라 각기 달리 기대되는 행동 양식’을 의미한다. Block(1973)은 성역할을 ‘개인이 속한 문화권 내에서 남자와 여자로 특징 지워지는 일련의 특성’이라고 정의하였다. 홍영서(2001)는 성역할이란 ‘한 사회의 문화나 사회 집단에서 남성 혹은 여성적인 것으로 동의되고 인정된 행동과 태도’라 할 수 있으며, 문화나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한 개인은 사회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역할에 동일시하는 정도에 따라서 자신의 성역할 정체감(gender role identity)을 형성하게 된다. 개인은 유년기에 자신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성정체감(gender identity)을 가진 뒤 그 개인이 속한 문화에서 자신의 성에 적합하다고 규정된 일련의 가치관과 특성을 습득해 가는 성 정형화(sex-typing)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성별에 따라 획득되는 성격 특성, 태도, 선호 경향, 행동’ 등을 모두 합하여 성역할 정체감이라고 하였다(김미숙, 2003; 정진경, 1987).

이와 같이 성역할 정체감은 한 개인의 성역할 지향성을 특징짓는 성격 특성과 행동 특성의 집합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남성성을 도구적 특성(instrumental qualities)으로, 여성성은 정서적 - 표현적 특성(emotional - expressive qualities)으로, 양성성은 도구적이고 표현적 특성 모두를 갖는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성역할 정체감에 대해 일치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개인이 속한 문화권 내에서 그 개인에 대하여 남자와 여자로 특징지어지는 일련의 특성’을 뜻한다는 공통된 정의를 포함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정체감을 ‘개인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나름대로 경험하고 발달시킨 성에 대한 독특한 개인의 성격 및 행동 특징으로서의 내면화 정도’ 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Bem(1974)은 양성성(androgyny type), 남성성(masculinity type), 여성성(femininity type), 미분화(undifferentiated)의 네 가지 유형으로 제안하였다.

< 표 - 1 > Bem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

구 분		여성성 점수	
		높다	낮다
남성성 점수	높다	양성적(Androgynous)	남성적(Masculine)
	낮다	여성적(Feminine)	미분화(Undifferentiated)

구체적으로 양성성 정체감은 한 개인 내에 남성성과 여성성의 두 특성이 통합되어 남성다운면서도 여성적일 수 있는 남성 성향과 여성 성향을 모두가 가진 유형으로 이들 특성이 균형을 이룬 상태를 의미한다. 남성성 정체감은 그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남성다운 특징들로 인정되고 있는 특성, 즉 적극성, 활동성, 성취지향성, 독립성, 공격성, 경쟁성, 자기신뢰, 주도력, 통솔력, 지배성, 권위지향성, 야망 등의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남성 성향이 강하고, 여성 성향이 약한 유형이다. 여성성 정체감은 그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여성다운 특징들로 인정되고 있는 특성인 양육성, 순종성, 의존성, 민감함, 동정성, 변덕스러움, 애교심, 질투심, 말이 많음, 잘 울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성 성향이 강하고, 남성 성향은 약한 유형이다. 미분화 정체감은 남성적 특성, 여성적 특성 중 어느 한 쪽도 제대로 표현되지 않아 남성 성향과 여성 성향이 모두 약한 경우를 표현한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성역할 유형 중 바람직한 유형으로 대표되는 양성적인 사람의 특징을 진희경(1998)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성 정형화된 사람은 자신의 성별에 적합한 행동만을 취하는데 비하여 양성적인 사람은 여성적인 행동과 남성적인 행동을 모두 보임으로써 더 다양한 행동을 수행해 낼 수 있다. 따라서 많은 행동 목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양성적인 사람은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바로 그 특성 때문에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성 정형화된 사람은 그 상황에 요구되는 대처가 정형화된 역할과 맞지 않으면 적절하게 반응할 수 없다. 셋째, 양성적인 사람들은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인 사람보다 양성적 특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더욱 건강할 것이다. 따라서 양성적인 사람은 고정 관념적인 성역할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적응적이고, 더 잘 순응할 것이라고 보고되어 왔다. 많은 연구들에 의해 이러한 가정의 경험적 타당성이 계속 입증되어 최근 양성성은 행복한 삶의 모델로서 제안되기도 한다.

따라서 Bem(1974)은 전통적인 남자와 전통적인 여자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전통적인 사고를 거부하고 남녀 모두 개인이 완전하게 심리적으로 건강한 인간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양성적인 성격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한 인간에게 있어서 다양한 상황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해 주는 성역할 유형으로 보았다(김혜래, 2003). 송은경(1994)은 양성성을 남성성과 여성성이 상호배타적이지 아니라 동시에 공유되며, 이들 두 특성이 혼합함으로써 성에 관계없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보다 가치로우며 보다 이상적인 상태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성역할은 성별에 따라 문화 내에서 인정되고 기대되는 행동 양식, 태도, 인성 특성을 포함하는 행동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써 개인마다 다양한 형태로 공존한다(김혜래, 2003). Spence(1975) 또한 성역할 정체감을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았으며, 가장 바람직한 특성으로 양성성을 제시하였다. 이

리한 측면에서 성역할 정체감이 확립되는 청소년기에 자신의 고유성 및 잠재력에 대한 발견의 기회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을 성차보다는 개인차로 보고, 성역할 정체감이 개인 발달 및 개인의 정체감 형성과 성장, 그리고 사회화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여 성역할 정체감을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의 한 변인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성역할 정체감의 발달 이론

성역할 정체감을 설명해 주는 이론으로는 Freud(1952)의 정신분석 이론, Bandura(1977)의 사회학습 이론, Kohlberg(1966)의 인지발달 이론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이론과 Bem(1974)과 Cook(1995)의 심리적 양성성 이론으로 대표되는 대안적 이론을 < 표 - 2 >에 제시하였다.

성역할 정체감 형성에 대한 성역할 정체감 사회화 과정을 설명하는 전통적인 이론들은 성역할 정체감 형성에 생물학적인 영향보다 심리사회적 경험이 보다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하였으나 이러한 연구는 모두 아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현대 사회의 성역할이 변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정형화된 성역할이 바람직하다는 기본 전제하에 전개되고 있어 이러한 전통적인 성역할 정체감의 대안적 개념으로 심리적 양성성 이론이 등장하였다. 심리적 양성성은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여성적인 특성과 남성적인 특성을 공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심리사회적 특성을 지닌 사람들은 기존의 시각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졌던 성 정형화된 사람들과 달리 양성의 특성이 모두 표현되므로 심리적 건강과 사회화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개념화하였다. 또한 양성성 유형의 개인은 전통적으로 성 유형화된 개인보다 적응 능력 면에서 더 우수하고, 사회적 안정도와 지적 능력이 높고,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력이 높아 유동적인 성격을 지니며,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

고, 교우 관계에서도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이순영, 2003). 이와 같이 개인의 내적·외적 태도 및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성역할 특성에서 남녀 행동의 본질적인 특성인 ‘남성성’ 과 ‘여성성’ 은 생물학적 요소로 결정된 것이 아니며, 심리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은 생물학적인 성과는 어느 정도 독립적이라고 보면서 성역할 정체감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고정관념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종합해 볼 때, 성역할 정체감의 발달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들의 공통점은 성역할 모델로서 부모 역할 및 학습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성역할 정체감은 부모, 형제, 친구 등 사회화를 촉진시켜 주는 주위 사람들을 통해 성별에 적절한 역할을 인식하는 과정인 성역할 사회화를 통해 형성된다(민귀식, 2002). 또한 성역할 정체감은 개인의 외적 행동, 정서적 반응, 인지적 기능, 내적 태도, 심리적 적응 및 사회적 적응을 뚜렷하게 나타나게 한다(이애리사, 2001). 그러므로 한부모 가족 자녀들이 비록 성역할 정체감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는 하지만 올바른 성역할 정체감 형성을 위한 학습과 사회 환경 속에서 다양한 경험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성역할 정체감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이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적응의 영향 변인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표 - 2 > 성역할 정체감 발달 이론

구분	대표이론	대표학자	이론의 내용
전통적 이론	정신분석 이론	Freud (19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동일시 과정에 의해 아동의 성 유형 형성 • 동성 부모의 성격, 가치, 버릇 등을 모방 • 동성 부모와의 동일시를 통해 콤플렉스 해소 • 성역할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 이외의 다른 사회 문화적 요인을 무시
	사회학습 이론	Bandura (19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역할도 환경과 경험에 의해 학습되는 후천적인 행동 양식으로 봄 • 성 정체화 과정을 강화와 모델링의 원리로 설명 • 개인의 성역할 태도나 행동을 영구적이거나 고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음 • 환경과 경험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가변적인 것으로 봄
	인지발달 이론	Kohlberg (19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성에 적합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구성 • 4세경 성 안정성에 대한 인식이 시작 • 5~6세경 성의 불변적 특성인 성 항상성을 획득 • 양성이 뚜렷이 구별되는 것이 전형적이며, 바람직하다고 봄
대안적 이론	양성성 이론	Bem (1974), Cook (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으로 이분화 된 성역할 특성을 극복하는 대안적 개념 • 남성성과 여성성이 동시에 공유하며 모두에게 가치 있고 이상적인 상태 • 새로운 성역할 개념에서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미분화 유형으로 구분 • 양성적인 개인은 사회에 적응하여 보다 건강하게 살아가며 사회적 유능감을 가짐 • 양성적인 개인은 자아존중감이 높아 긍정적인 삶을 영위함

3)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

성역할 정체감 특성에 의거하여 한부모 가족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을 살펴 보면, 한부모 가족 자녀의 경우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가 무관심하거나 방임, 무시 등의 행동은 자녀의 남성성, 여성성 점수 모두 낮은 미분화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영향을 준다(음정자, 1993). 가족 관계가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홍섭(1987)의 연구에서는 모자 가족의 남자 자녀에게서 미분화가 많이 나타나고, 부자 가족 여자 자녀의 경우 양성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장은진(1991)도 모자 가족에서 자란 자녀는 이성과의 관계에 부적합한 행동을 취하며, 융통성 없이 성 유형화 되거나 그 반대의 극단적인 형태를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 한부모 가족 자녀는 부모의 부재로 인해 성역할 정체감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개인의 정체감 발달 및 사회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김선정, 2002). 또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성역할 정체감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교육수준과 자녀가 지각한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는 양성성을 가진다고 하였다(김경자, 1990). 박미정(1996)과 변명숙(1980)도 부(父)와 모(母)의 교육수준이 높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 때 자녀가 양성성을 가지는 비율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한부모 가족의 자녀들이 성역할 정체감 형성에 있어 양부모 가족의 자녀들보다 양성성 성역할 정체감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성성 유형인 사람들이 성역할 제한으로부터 융통성을 가지므로 변화하는 다양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그 상황에서 요구되는 가장 효과적인 반응을 하도록 자신을 유도하며 자신감을 보인다(김영희, 1990; 민남정, 2001)고 보고한 결과에 따라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가 양성성 유형의 성역할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긍정적 요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에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의 유형별 실

태를 먼저 살펴보고,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들이 성역할 정체감 형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올바른 성장에 성역할 정체감이 기여할 수 있음을 논의하고자 한다.

3. 자기효능감

1) 자기효능감의 개념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 이라고 정의한다(Bandura, 1986). 또한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유능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판단으로서 (Schunk, 1984), 주어진 상황의 요구에 부합하는 동기적·인지적 원천 및 행동 방향을 이끌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Gist & Mitchell, 1992). 객관적인 도구에 의해서 측정된 능력과 지각된 능력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자기효능감은 지각된 능력 측면이며, 그 지각된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측정된 능력에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행동 수준이 달라진다. 즉, 사람은 자기의 환경을 선택함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될지를 통제할 수 있으며, 이 선택은 개인적 능력에 대한 신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조절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전적인 활동이나 상황을 더 쉽게 선택하고, 자신의 대처 능력을 넘어선다고 여겨지는 행동이나 상황에는 더 오래 견딘다. 이러한 선택 과정을 통해 사람마다 다양한 능력, 관심, 사회적 관계가 축적되면서 이것이 인생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Bandura, 1994). 자기효능감은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정의적 특성으로 개인의 행동 양식, 성취동기, 목표의 계획 및 달성, 자아실현, 사회적 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과 환경의 선택에 영향을 주므로 개인의 생활에 더없이 중요하다(안순자, 1977). 그러므로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유형의 건강 및 사회적 문제의 보호요인으로 일컬어지는 대표적인 자원이며, 개인이 갖는 자신의 유능감과 가치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써 한번 형성된 자기효능감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즉, 개인이 자기효능감을 형성시킨 것은 그 개인의 경험들이기 때문에 경험 내용이 달라지면 개인의 자기효능감도 달라진다고 본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로서 자기 행위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을 ‘구체적 상황에서 목표 수준의 달성에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하는데 대한 개인 능력의 판단 또는 기대’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자기효능감의 발달 과정

인간은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제반 행동 특성과 자기효능감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개인이 타인들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타인들이 자신을 보는 관점에 대한 지각과 사회적 규범이나 타인들의 기대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이 발달하게 된다.

Bandura(1994)는 청년기까지 어떠한 환경에 노출되었는지에 따라 개인의 자기효능감이 발달된다고 하면서 자기효능감의 네 가지 근원에 대한 고찰을 이론화하였다. 자기효능감은 <그림 -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네 가지의 학습 경험 즉, 수행 성취, 대리 경험, 정서적 각성, 언어적 설득이나 격려를 통해 획득된다(Bandura, 1994).

첫째, 수행 성취는 가장 영향력 있는 자기효능감의 원천이 된다(Bandura, Adams, & Beyer, 1997). 일반적으로 성공경험이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실패

경험은 자기효능감을 낮게 한다. 그러나 실패가 노력에 의해 극복되었을 경우 자기효능감을 높이게 되며, 탄력성 있는 자기효능감을 지니기 위해서는 달성하기 쉬운 성공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장애를 극복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반복된 성공을 통하여서 자기효능감이 강해지면 가끔 씩의 실패는 자기효능감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일단 향상되면 이것은 유사한 상황뿐만 아니라 다른 행동에 있어서도 일반화되고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킨다(Bandura, 1977a; 1977b). 예를 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장애나 실패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오래 참을 것인가, 역경에서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는가, 사고방식이 방해가 되는가, 도움이 되는가의 여부, 매우 부담되는 환경적 요구에 대처할 때 얼마나 많은 긴장과 우울을 경험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수준의 성취를 실현할 것인가에 영향을 준다(Bandura, 1997).

또한 다양한 상황에서 성공이나 실패를 한 과거의 경험들이 개인의 자기효능감을 형성하고, 이와 같이 형성된 자기효능감은 다시 새로운 상황에 대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Sherer, 1983), 위험한 환경을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전략과 행동 과정을 채택한다(Bandura, 1997). 성공경험을 통하여 자기효능감을 개발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활환경을 다루는데 적합한 행동 과정을 창조하고, 실행하기 위한 인지적·행동적 자기 조절을 획득하는 것이다. 환경적 정보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그것이 어떻게 인지적으로 평가되느냐에 달려있다. 특정 어려움과 실패의 경험은 성공이 부단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데 유용하게 기여한다. Hetherington(1989)은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인한 가족 해체는 자녀들이 학대받고 방임적인 가족 환경에서 벗어나 더 조화로운 가족 환경으로 전환시켜 행동적이고 심리적인 문제를 적게 가지며, 능력 있는 개인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에게도 한부모 가족이 됨으로써 부부간의

갈등 및 부모와의 갈등 등이 해결되고,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를 제거하여 오히려 더 평화로운 가족이 됨으로써 성공적 경험의 바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환경적 요인을 긍정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자기효능감이 견고하게 형성될 수도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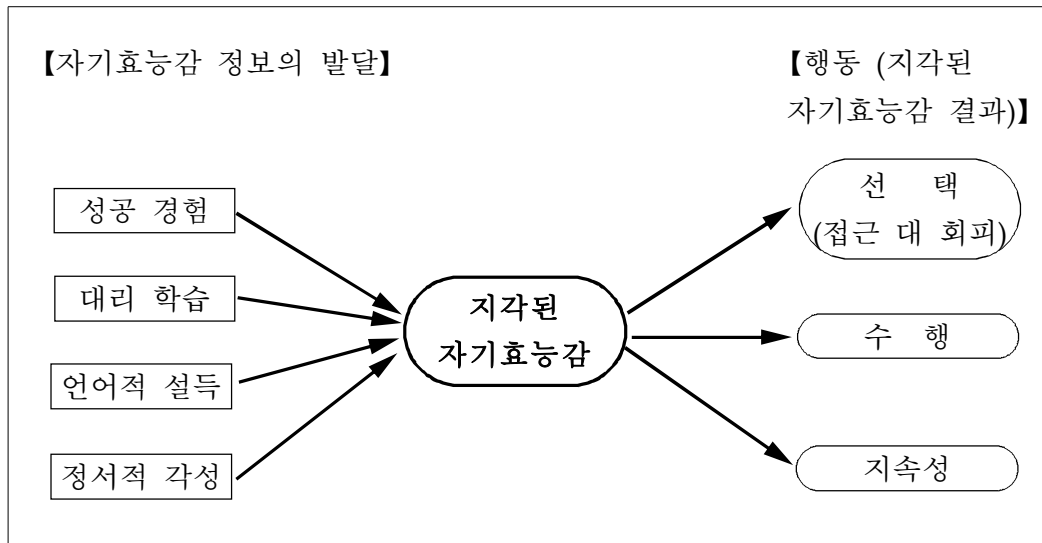
둘째, 사회적 모델이 제공하는 대리 경험을 통해서 자기효능감을 얻는다. 인간은 자신과 유사한 타인의 성공적인 성취를 보거나 상상함으로써 자신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다(Bandura, Adams, Hardy, & Howell, 1980). 자신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과거의 경험이 부족한 경우 인간은 대리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모델이 개인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관찰자가 모델과 자신을 유사하게 지각하는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관찰자가 자신과 모델을 유사하다고 가정할수록 모델의 성공과 실패가 관찰자에게 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모델은 개인에게 능력판단의 기준을 제공한다. 개인적 성공 경험이 없을 때조차도 개인은 타인의 성공과 실패를 관찰함으로써 자기효능을 추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 성적은 상대적으로 판단되고, 자신의 능력은 자기 또래의 유능함과 자신의 성취를 비교함으로써 추론된다(Festinger, 1954). 이러한 모델링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단순히 사회적 기준을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경우도 또래집단 및 청소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신과 비슷한 환경에서의 유능한 모델을 보고 자기효능감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자기효능감을 강화하는 지식, 기술, 전략을 전수하는 방안의 모색도 필요하다.

셋째, 어떤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말해주는 언어적 설득은 적절할 때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언어적으로 설득되는 사람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욱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 동기화되고, 그 노력을 지속하기 쉽다(Litt, 1988; Schunk, 1989). 언어적 설득은 대화자가 신뢰할만하고

전문적이며 매력이 있을 때 더욱 효과적이다(Petty & Cacoppo, 1986). 언어적 설득은 실제의 수행과 관련을 맺어 실시되며, 피설득자가 자신이 효과적으로 대체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을 때 커다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Chambliss & Muarray, 1978).

이러한 면에서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와 부모간 긍정적인 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학교 교사 및 친구, 선·후배 등의 언어적 설득을 통한 지지 요소 또한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 판단된다.

넷째, 자기효능감 정보원은 개인의 신체적·정서적 반응에 의해서도 제공된다. 개인은 자신의 능력을 판단할 때 어느 정도 자신의 정서적인 상태를 고려한다. 억압적이고 부담을 주는 상황은 정서적 흥분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정서적 각성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긍정적인 기분상태에 있을 때 자신을 효율적으로 판단하고, 우울한 기분상태에 있을 때 자신을 비효율적으로 판단한다(Kavanagh & Bower, 1985). 그러므로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해서는 스트레스 반응을 감소시키고, 부정적인 정서 경향성을 변화시켜야 한다(Bandura, 1994). 중요한 것은 신체 반응과 정서 반응의 강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각하고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한부모 가족의 청소년 자녀에게도 정서 상태 및 신체적 반응의 다양한 기능 영역에서 비현실적이고 유해한 자기 신념을 긍정적인 인지 처리 과정의 변화를 통해 수행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그림 - 1 > Bandura의 지각된 자기효능감 모델

종합해 볼 때,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주변 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청소년들은 그들이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활동을 가장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의 향상은 문제 해결의 원동력이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자기효능감 수준을 알아보고,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3)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자기효능감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은 가족의 심리적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된다. 김성숙 (2003)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의 안정과 화합, 가족의 친밀과 애정, 부모의 배려가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기종 (2000)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 태도를 수용하고, 자율적으로 인식한 자녀의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

수록, 부모가 부재하거나 부모의 양육 태도가 무심하거나 정서적 지지가 적을수록, 사회적 지원이 적을수록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노호은, 박경자, 2001)가 한부모 가족 자녀들은 자기효능감 향상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취업모를 둔 한부모 가족 자녀는 양부모 가족의 자녀보다 자기 가치에 대해 회의적이며, 자기를 무가치한 인물로 보며 종종 불안을 느끼고 불행스럽게 느낀다고 하였다(박정선, 1985). 또한, 부모와의 안정적인 관계와 부모의 다양한 경험 제공은 자녀의 자기효능감 형성과 많은 관련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생계유지에 전념하게 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의 자기효능감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성숙, 2003). 이와 같이 가족 환경은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이 자녀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자녀의 자기효능감도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가족환경은 자기효능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우희정, 1992). 한부모 가족의 자녀들은 가족 환경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수동적인 면을 보일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의욕과 할 수 있다는 동기 의욕을 일으키고,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한 노력과 행동에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기효능감의 배양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들이 환경의 변화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현명하고 끈기 있게 극복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4. 사회적 적응

1) 사회적 적응의 개념

Moorehouse(1991)는 적응에 대한 개념을 ‘가족이나 또래와 상호작용하고 협동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이 책임을 져야하는 일에 대한 요구나 적합한 행동의 요구에 대처하는 능력’ 이라고 정의하였다. Allport(1961)는 적응을 ‘환경에 대한 자발적, 창조적 행동이며, 그 필수조건으로 행동과 결과가 개인에게 안정감을 주고, 사회의 가치, 질서에 합치되는 상태’ 라고 정의하였다. Germain(1979) 또한 적응을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개인이 그의 일생동안 생존과 성장, 생산적 기능들을 충족하기 위해 그의 환경과의 적합성(goodness of fit)을 성취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 으로 보았다. 김성경(2001)도 적응에 대해 ‘개인과 환경 사이의 활발한 상호교환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개인이 자신의 욕구에 적합하도록 환경을 변화시키며, 또한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맞춰나가는 과정’ 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적응된 상태란 ‘개인이 항상 변화하는 사회 환경 또는 사회적 여건 하에서 자기 자신의 욕구가 잘 충족되거나 조절되고, 일상생활에서 생겨나는 제반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스스로의 생활에 좌절감이나 불안감 없이 만족을 느끼는 상태’ 를 말한다.

이러한 적응의 개념을 토대로 사회적 적응은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사회의 욕구를 반영하며, 사회 규범의 역할 인식, 윤리적 가치 등을 내포한다(최성윤, 2000). 즉, 개인의 정신적 능력과 기술, 신체적, 사회 환경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에 맞는 자질을 필요로 하는 과정으로 정서적 안정과 사람들간 상호관계의 과정이라는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개인이 다양한 차원의 타인, 즉, 가족, 동료, 지역사회, 국가 등으로부터의 영향에 의해 변화하고 의존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다(임승주, 2004).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적응을 ‘사회적 맥락에서 각 개인이 보이는 사고 특성과 행동 양식 및 한 개인이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적절히 기능할 수 있는가의 정도’ 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을 보는 관점도 해체 가족이라는 가족 구조적 측면의 역기능적인 면에 초점을 두지 않고 가족의 기능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2)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

김동직(1999)은 사회적으로 잘 적응한 사람이란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사회적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 대한 만족감이 높고,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였다. 이혼가정 자녀의 적응에 관한 정현숙(1993)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발달 과정에서의 위기적인 사건에 대한 적응 과정은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 즉 사건을 인지하는 방식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제 해결 방법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또, 한부모 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오승환(2001)은 사회 적응 문제로 한부모 가족의 자녀들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과 편견으로 인해 교우 관계 및 이웃과의 관계도 원만치 못하고, 부가족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회적으로 적응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며, 자아존중감도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모(母)의 부재로 인해 역할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것과 가사 업무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 및 부(父)에 대한 원망과 가족에 대한 수치심 등이 아들보다 딸에게서 더 많이 작용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성영혜(1984) 또한 모(母)가 없거나 있더라도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가 부(父)가 없거나 있더라도 아버지로서의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보다 사회성이

낮다고 제시하였다. 권영미(2000)는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변사람들이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자녀들은 대인관계를 피하게 되고 사회적 적응력이 떨어진다고 연구 결과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김남숙(1993)은 정상가정과 이혼가정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연구 결과를 밝혔으며, 한부모 가족 기능 요인에 따른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관한 이애재(2000)의 연구에서도 한부모 가족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은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양부모 가족 자녀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자녀가 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가족 환경은 자녀의 사회적 적응과 매우 관련이 깊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부모는 자녀의 양육 환경을 제공 또는 규정하고, 사회화 과정에 있어 기본적인 모형이 되며, 동일화의 대상이 되고, 자녀와 정서적 관계를 형성,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부모가 어떤 환경을 갖고 어떤 모습을 지니며 자녀와의 관계를 어떤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성장 발달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뿐 아니라 사회 집단 활동에 있어 기본적인 행동 양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한부모 가족의 사회적 적응과 관련하여 가족상실론적 관점, 가족 체계론적 관점, 가족스트레스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족상실론적 관점(Parental Absence Perspective)은 가족결손이라는 구조적 특징에 의해 구성원들이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Amato & Keith, 1991; Demo & Acock, 1988). 가족이 자녀의 양육과 사회화를 담당하는 중요한 사회적 제도이기 때문에 부(父)와 모(母)의 부재는 가족 전체와 자녀에게 심리적 영향, 지속적인 생활의 긴장, 그리고 사회적인 부적응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부모 가족이라 하더라도 부모와의 관계 형성에서 긍정적이고, 질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자녀의 사회적 적응을 돕는다면 청소년 자녀의 적응력은 높아질 것이다.

다음으로 가족 체계론적 관점에서 가족 기능은 사회를 존속시키고 가족 성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가족이 수행하는 활동이나 서비스를 말한다. 가족 기능은 가족 체계의 성장, 연속, 생존 유지에 필요한 활동으로써 가족 성원을 상호작용적 역동 관계에 있게 하며, 가족 성원 간에 일어나는 교류의 양과 내용을 가족 과업으로 정의하고(Hess & Hendel, 1985), 개인 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정체성과 관계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개념이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 다양한 문제를 경험한다(고성혜·한유진, 1995). 그러나 가족의 문제 해결 기능이 긍정적이고, 가족의 역할 분담과 책임 과정이 명백하게 제시되어 역할 기능이 좋을수록, 가족 성원들이 다른 가족 성원이 하는 활동이나 일에 공감적으로 관여할수록 이러한 가족 결손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게 감소될 것이며,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력은 높아질 것이다.

끝으로 가족스트레스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적응은 자원과 스트레스원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 가족 결손을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보는 학자들은 가족 결손이 가족과 자녀의 사회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 사건인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향이 감소되는 일종의 전이 상태로 가족 결손을 보아야 하며, 가족 결손의 성공적인 적응 여부에 따라 가족과 자녀의 적응이 달라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한부모 가족 자녀의 적응은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있을 때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다(Amato, 1999). 이러한 자원에는 청소년 개인적인 특성과 가족의 지지, 사회적 지지와 역할 제공, 경제적 자원 등을 포함하게 된다. 많은 자원을 가진 자녀는 인지 능력과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킬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자원이 적은 자녀들에 비해 스트레스 생활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적 적응 능력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는 사회적 적응의 초석을 세우는 시기로 신체적·정서적·인지적·사회적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므로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자신이 극복할 수 있는 것과 필요한

것에 대해 보다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3)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 영향 요인 고찰

(1) 사회인구학적 특성

① 성

성별과 사회적 적응을 다룬 연구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성이 높다고 하였고(Falbo & Poston, 1993), 대부분의 연구(김지신, 1996; 박지혜, 2005; 연미희, 1998; Slee, 1986)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이 사회적 적응을 더 잘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모든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 적응이 높은 것은 아니다. 아동의 성별은 사회적 적응과 관계가 없다고 보고하였으며(강성희, 1992; 김경은, 1997; 박소혜, 1995), 서혜전(1993)의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사회적 적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남학생은 여러 명과 폭넓은 관계를 형성하고 활동을 공유하며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반면, 여학생은 친밀하고 깊은 소수와의 관계를 선호하며 주로 대화를 통해 공통의 관심사와 비밀을 공유하며 또래 관계를 형성하기에 여학생에게서 또래 애착이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다(유안진, 이점숙, 김정민, 2005).

② 연령

연령과 사회적 적응에 대한 연구(Parker-Cohen & Bell)에 의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미희(1998)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적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김진희(1989)의 연구에서는 학년이 낮을수록 특히 저학년일수록 고학년에 비해 사회적 적응 점수가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증가해서 고학년이 될수록 사회적 상호작용이 빈번해지면서 성장에 대한 압박이 커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김경은(1997)과 강성희(1992)의 연구에서는 연령은 사회적 적응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③ 생활수준

자녀가 지각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적응을 다룬 연구에 의하면 상류 계층 자녀가 행동 문제를 가장 적게 보이고, 하류 계층 아동이 행동 문제를 가장 많이 나타내어서 사회경제적 계층이 높을수록 아동이 문제 행동을 적게 나타내고 사회적 적응을 더 잘한다고 보고하였다(Achenbach, 1978). 또한 윤서영(1999)은 직업이 있는 모(母)의 자녀들이 전업주부의 자녀들보다 사회적 적응을 더 잘한다고 하였으며, 채은영(2001)은 부(父)의 직업이나 모(母)의 직업이 단순노동일 때 자녀들의 사회적 적응이 낮은 것으로 보고함에 따라 생활수준은 자녀들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④ 가족 유형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는 결손가족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 보고, 모자가족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부성 부재의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제

시되고 있다. 부(父)의 부재로 인해 부(父)를 모방할 기회와 양육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아들은 남성다움을, 딸은 여성다움의 발달에 손상을 입어 아들은 덜 공격적이고 여성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오승환, 2001; Hall et al., 1986). 부자가족에서는 모성 부재로 딸의 경우, 사회적 발달이 부족하여 미성숙하고 덜 사교적이며, 더 의존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아들의 경우, 딸에 비해 성숙하고 사교적이며, 독립성이 강하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지영, 2003).

⑤ 부모와의 관계

부모가 수용적인 양육 태도를 보일수록 자녀는 사회화 및 협조가 잘되고, 상냥하며 명랑한 편이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하며, 부모의 수용적인 양육 태도는 자녀의 사회적인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Hurlock, 1978). 김원정(2004)의 연구 결과에서도 부모의 다정성, 자율성의 격려 수준이 높고 과잉보호가 낮을수록 청소년의 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부모의 양육 태도를 부(父)와 모(母)로 구분하여 살펴볼 때, 모(母)의 양육 태도가 애정적이고 합리적일 때 자녀의 사회적 적응이 높다고 나타났으며(김지신, 1996), 한미현(2004)의 연구에서는 모(母)의 양육 태도가 친밀감과 합리성으로 자녀를 대한다면 자녀의 사회적 능력 중 대인적응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부(父)의 양육 태도가 자율적이고 애정적이며 관심을 보인다면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능력 중 대인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은주영, 2002). 따라서,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애정적이거나 자율적이며 일관성이 있을 때 자녀들의 사회적 적응이 발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부모 가족 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최선우(2006)의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2) 성역할 정체감

성역할 정체감과 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Bem(1985)외에도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양성적인 사람일수록 도덕성이 발달하고 사회적 안정도와 지적 능력이 높으며, 상황에 따라 남성적일 수도 여성적일 수도 있다(Block, 1973). 또한 양성적인 사람들은 상당히 적응력이 높아서 상황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 임정순(1999)의 연구 또한 양성성의 유형을 가진 자녀가 지배적이고, 유순하며 책임감이 있는 것으로, 협동적인 대인관계에서도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오윤자(2003)의 연구에 의하면 양성성 유형인 청소년이 학업 성취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미분화인 청소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령(2002)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양성성 정체감을 가질 때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양성성 유형을 가진 청소년들이 다른 유형을 가진 청소년들에 비해 사회적 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역할 정체감과 사회 적응 및 대인관계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미성(1992)과 김영희(1990)의 연구에서는 양성성 성역할 정체감이 개인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순화·이경희(1997)의 연구에서도 성역할 태도가 사회적 능력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김용엽(1997)은 성역할 정체감과 일탈 행동과의 관계에서 양성성과 남성성이 사회 적응을 잘하며, 일탈 행동에서도 많은 관계가 있음을 밝혀 바람직한 성역할 정체감 형성을 위한 교육적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Mussen(1969)은 남성성 성역할 정체감을 지닌 남성은 청소년기 동안 심리사회적 적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인이 되었을 때 불안감이 높고 신경과민을 보이며 자기 수용성이 낮다고 보고함으로써 청소년기에 확립된 성역할 정체감이 전생애 걸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Bem(1974)도 양성성 모형 이론에서 양성성 정체감을 갖는 사람들은 남성성

변인과 여성성 변인 점수간의 차이가 거의 없이 모두 높으며, 성역할 행동에서는 전통적으로 성 유형화된 사람들보다 유연성을 더 많이 나타내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사회적 적응을 잘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청소년기에 바람직한 성역할 정체감 형성의 중요성과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라 사회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바람직한 성역할 정체감 형성이 사회적 적응의 초석이 됨을 밝혀 보고자 한다.

(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사회 속에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므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능력인 사회적 능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강수진, 이숙, 1995).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사회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선옥(2001)의 연구에서는 외향적인 학생이 내향적인 학생보다 여가시간 활용, 주위 사람의 기대 일치, 자기주장, 사회성, 자기효능감이 높아 사회적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윤운성(1998) 또한 학습 상황 속에서 자기효능감은 학생의 학업 성취에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동영(1997)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 성취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들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 사회적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바탕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문제 및 연구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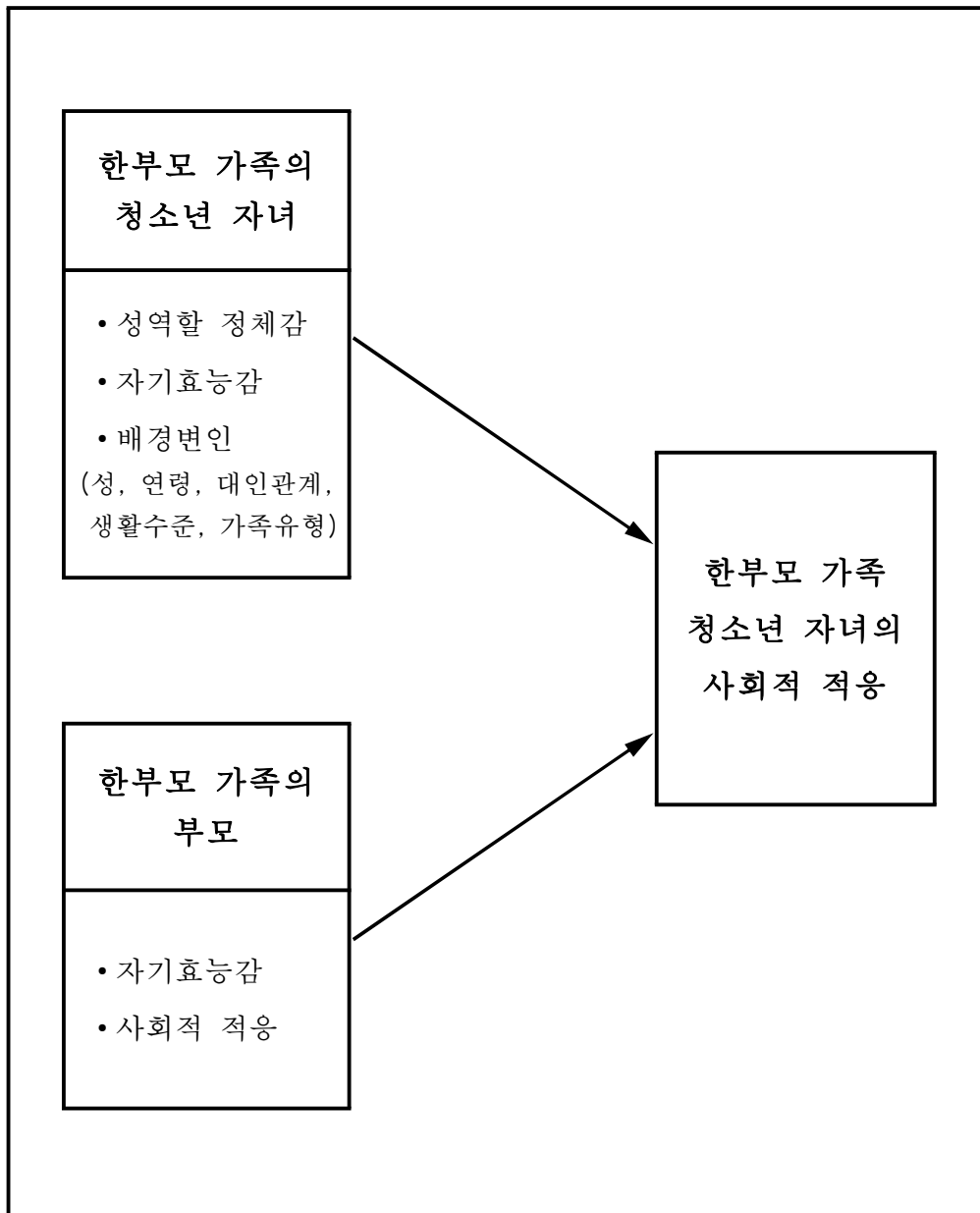
본 연구는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 및 자기효능감이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의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와 연구 모형을 <그림 - 2>에 제시하였다.

<연구 문제 1>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사회적 적응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2>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따른 사회적 적응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3>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 자기효능감, 사회적 적응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 문제 4>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그림 -2> 연구 모형

2. 용어의 정의

1) 한부모 가족

이혼, 사별, 별거, 미혼모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으로 부모 중 한 명과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혼과 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족만을 대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청소년

청소년기는 인간발달 단계에서 볼 때 보호자의 보호와 의존을 필요로 하는 아동기와 사회생활이 전개되는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로 신체적·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급격한 발달 특성을 갖게 되는 시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나이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청소년이라 지칭한다.

3) 성역할 및 성역할 정체감

성역할이란 주어진 사회의 남성과 여성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행동과 태도의 유형으로 정의하고, 성역할 정체감(Sex-role identity)은 개인이 성역할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속한 문화권내에서 생물학적 성에 적합한 것으로 고려되는 성격 특성, 행동 양식 및 가치에 비추어 개인이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남성적인 성격 특성 또는 여성적인 성격 특성을 가졌다고 보는가 하는 정도로 정의한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유형의 네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분한다.

(1) 양성성

한 개인 내에 남성성 특성과 여성성 특성이 통합되어 남성적 성향과 여성적 성향을 모두 가지고 이들 특성이 균형을 이룬 유형이다.

(2) 남성성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남성다운 특징들로 인정되고 있는 바람직한 남성적 고정관념 특성을 많이 갖고 있으나 여성적 고정관념 특성은 적게 갖고 있는 유형이다.

(3) 여성성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여성다운 특징들로 인정되고 있는 바람직한 여성적 고정관념 특성을 많이 갖고 있으나 남성적 고정관념 특성은 적게 갖고 있는 유형이다.

(4) 미분화

남성성 특성과 여성성 특성 중 어느 한 쪽도 제대로 형성되지 못해 남성 성향과 여성 성향이 모두 낮은 유형이다.

4)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특정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개인의 성취 장면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가지는 기대, 어떤 결과를 얻는데 필

요한 행동을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잘 수행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자기 능력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정의한다.

5) 사회적 적응

사회적 적응은 사회적 맥락에서 각 개인이 보이는 사고 특성과 행동 양식 및 한 개인이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적절히 기능할 수 있는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하고, 대인관계, 사회성, 학교생활 적응력, 의사소통, 자기관리 능력의 다섯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

(1) 대인관계

대인관계란 한 개인이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를 의미한다. 사회적으로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개인이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갈 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개인으로 발달해 가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2) 사회성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과 역할에 적응해 가는 능력으로 사회 환경 속에서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반응으로 인간이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과정과 자기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3) 학교생활 적응력

청소년들의 모든 행동이 학교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잘 조화되고, 성공적인 관계를 유지해 가며, 학교 수업에 적극적이고 학교 규범에 순응하여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4)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둘 이상의 사람 간에 여러 가지 매체를 사용하여 사실, 생각, 의견, 감정 등의 교환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과정으로 정의한다.

(5) 자기관리 능력

자기관리 능력은 자기에 대한 인식 및 자기관리, 자기 개발 능력 및 태도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강점·약점, 희망 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미래의 성공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매진할 수 있는 기획력, 자기 스스로 행동을 절제하고 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3.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절차

1) 조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족 중,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청소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의 부(父) 또는 모(母)로 구성된 한부모와 그들의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성별은 ‘남자’ 124명으로 62%, ‘여자’ 76명 38%로 남자가 여자 응답자에 비해 약 1.5배 정도 많았다. 학년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구분하였으며, ‘고등학생’이 112명으로 56%, ‘중학생’이 88명으로 44%로 나타났으며, 그 중 고등학교 1학년(n=56, 28%), 고등학교 2학년(n=55, 27.5%), 중학교 2학년(n=45, 22.5%) 순으로 고등학생 응답자가 중학생 응답자에 비해 많았다. 대인관계는 친한 친구의 유무로 구분하였으며, ‘친한 친구 있음(n=140, 70%)’이 ‘친한 친구 없음(n=60, 30%)’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 성적은 상·중·하로 구분하였고, ‘중’이 113명 56.5%로 가장 높았으며, ‘하’가 77명 38.5%로 ‘중’ 또는 ‘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가족 구성원 수는 ‘3명’이라는 응답이 40.5%로 가장 높았고, ‘2명’ 26%, ‘4명’ 이상 23%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부모와 사는 이유로는 ‘이혼(n=130, 65%)’이 ‘사별(n=70, 34%)’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한부모와 살기 시작한 나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인 ‘13세 이상’이 107명 5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8세 ~ 12세’가 74명 37%로 그 뒤를 이었다.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가 생각하는 우리 집의 생활수준을 묻는 항목에 대한 응답은 ‘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103명 51.5%, ‘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73명 36.5%, ‘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24명 12%로 대부분의 자녀들은 생활수준을 ‘중’ 또는 ‘하’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 표 - 3 >에 제시하였다.

< 표 - 3 >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일반적 배경

(단위 : N, %)

변인	분류	n	%	변인	분류	n	%
성별	남	124	62.0	한부모 가족 구성 원인	사별	70	35.0
	여	76	38.0		이혼	130	65.0
학년	중1	34	17.0	가족 수	2명	52	26.0
	중2	45	22.5		3명	81	40.5
	중3	9	4.5		4명	46	23.0
	고1	56	28.0		5명 이상	21	10.5
	고2	55	27.5				
	고3	1	0.5				
대인 관계	친한 친구 있음	140	70.0	한부모와 살기 시작한 나이	7살 이하	19	9.5
	친한 친구 없음	60	30.0		8살 ~ 12살	74	37.0
					13살 이상	107	53.5
학교 성적	상	10	5.0	생활 수준	상	24	12.0
	중	113	56.5		중	103	51.5
	하	77	38.5		하	73	36.5
			가족 유형	모자가정	117	58.8	
				부자가정	82	41.2	
합 계		200	100.0	합 계		200	100.0

※ 무응답으로 인하여 합계가 다를 수 있음.

한부모 가족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성, 연령, 학력, 종교, 자녀수, 직업, 근로형태, 가계 소득, 소득원, 한부모 가족 구성 원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그 결과 성별은 ‘남성’ 81명으로 전체 40.5%, ‘여성’ 119명으로 전체 59.5%를 차지하여 여성 응답자가 남성 응답자에 비해 많았다. 남성과 여성 응답자는 ‘41세 ~ 45세 이하’가 각각 남자 46명(23%), 여자 59명(29.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46세 이상’ 응답자의 비율이 남·여 각각 20명(10%), 42명(21%)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을 살펴본 결과 ‘고졸(n=116, 58%)’이 가장 많았고, ‘대졸 및 대학원 이상(n=57, 28.5%)’이 그 뒤를 이었으며, ‘중졸 이하(n=27, 13.5%)’가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종교는 ‘기독교(n=82, 41%)’가 가장 많았고, ‘무교(n=78, 39%)’, ‘불교(n=26, 13%)’, ‘천주교(n=14, 7%)’ 순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직업은 ‘회사원(n=56, 28%)’, ‘자영업(n=50, 25%)’, ‘단순 및 기능 노무직(n=41, 20.5%)’, ‘전문직/관리직/경영주(n=29, 14.5%)’, ‘실업 또는 무직 및 기타(n=24, 12%)’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대한 근로형태는 ‘상시고용(n=73, 36.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임시직 및 일용직(n=63, 31.5%)’, ‘자영업(n=52, 26%)’이 그 뒤를 이었다. 주 소득원은 ‘본인의 근로소득(n=146, 7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재산소득(n=23, 11.5%)’, ‘정부보조금 및 후원금(n=14, 7%)’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가계 소득은 ‘200만원 이상’이 36.5%로 가장 높았으며, ‘100만원 이하’ 33%, ‘100 ~ 200만원 미만’이 30%로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는 이유 및 기간에 대한 응답은 사별과 이혼으로 구분해 조사되었으며, ‘사별했다’는 응답에 대한 기간은 ‘2년 이하’가 32명, 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혼했다’는 응답에 대한 기간은 ‘4~5년’이 69명, 34.5%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 표 - 4 > 한부모 가족 부모의 일반적 배경

(단위 : N, %)

변인	분류	n	%	변인	분류	n	%	
성별	남자	81	40.5	소득원	본인의 근로소득	146	73.0	
	여자	119	59.5		국가로부터 받는 생계비	10	5.0	
연령	남	40세 이하	15		7.5	재산소득	23	11.5
		41~45세 이하	46		23.0	부모, 자식, 친척 등의 도움	12	6.0
		46세 이상	20		10.0	기존에 있던 저축	3	1.5
	여	40세 이하	17		8.5	후원금	4	2.0
		41~45세 이하	59		29.5	기타	2	1.0
		46세 이상	42		21.0			
최종 학력	중등졸업이하	27	13.5		근로 형태	상시고용	73	36.5
	고졸	116	58.0			임시직	33	16.5
	대학졸업	46	23.0			일용직	30	15.0
	대학원 이상	11	5.5			자영업	52	26.0
				기타		11	5.5	
종교	무교	78	39.0	가계 소득	100만원 이하	66	33.0	
	기독교	82	41.0		100 ~ 200만원 미만	60	30.0	
	천주교	14	7.0		200 ~ 300만원 미만	52	26.0	
	불교	26	13.0		300만원 이상	21	10.5	
직업	회사원	56	28.0	자녀수	남	1.13		
	전문직	15	7.5		여	0.59	-	
	관리직	13	6.5	한부모 가족 구성원인	사별	2년 이하	32	16.0
	자영업	50	25.0			3년 ~ 4년	31	15.5
	경영주, 고위관리직	1	0.5			4년 이상	7	3.5
	단순 노무직	17	8.5	이혼	3년 이하	34	17.0	
	기능, 노무직	24	12.0		4년 ~ 5년	69	34.5	
	실업 또는 무직	11	5.5		6년 이상	26	13.0	
	기타	13	6.5					
	합 계		200	100.0	합 계		200	100.0

※ 무응답으로 인하여 합계가 다를 수 있음.

종합해 보면, 본 연구대상자인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경우 2/3정도가 남학생이고, 고등학생이 50%를 넘게 차지했다. 대인관계는 70%가 친한 친구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학교 성적은 95%가 중·하위권을 나타내었다. 또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한부모 가족이 된 경우가 2/3 정도이며, 그 시기는 13세 이후가 50%를 넘어 청소년기에 한부모가 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생활수준은 ‘중’이 50%이상이며 ‘중’과 ‘하’가 8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부모의 경우에는 여성 대상자가 좀 더 많아 모자가족이 약 20%정도 더 많게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41~45세 이하가 남·여 부모에게 각각 높게 나타나 모든 부모의 연령대에서 50%를 넘게 차지했다. 부모의 학력은 고졸이 58%로 가장 많았고, 대졸 이상도 약 30%에 가까웠다. 직업은 회사원과 자영업이 각각 28%, 25%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전문직 및 관리직도 15% 정도를 보였다. 본인의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으로 70% 이상을 나타냈고, 가계 소득 또한 100~300만원이 50%를 넘게 차지했다.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 구성이 2/3 정도이며, 그 기간은 4~5년이 3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2)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질문지에 응답자가 직접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자세한 질문지의 구성은 <부록-2>에 제시하였다.

연구의 본 조사 실시예 앞서 조사 도구의 적절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2009년 2월 10일~17일까지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의 한부모와 그들의 자녀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때 조사대상자의 표집 방법은 유의 추출법을 사용하였는데, 조사를 위해서는 전체 모집단에 대한 설문은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면이 있기

때문에 무작위로 조사 대상을 추출하는 유의추출법을 사용하여 대표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비 조사 결과 본 조사에 적절하지 않거나 신뢰도, 타당도가 인정되지 않는 문항은 관련 전공분야 전문가의 평가와 조언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본 조사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본 조사의 실시는 특별히 교육을 받은 조사원에 의하여 2009년 3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 14세 ~ 19세의 청소년 자녀를 둔 한부모와 그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회수하는 형태로 수집되었다. 본 연구의 질문지는 한부모와 그들의 자녀, 각 250부씩 총 500부가 배부되었고, 그 중 한부모와 청소년 자녀 각각 228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응답 문항이 부실하게 기재되거나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설문의 응답 각 28부를 제외하고, 본 연구의 분석에는 최종 자료로 각 200부씩 총 400부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조사는 한부모 가족의 자조 모임인 한부모 가정 지원센터 회원들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지역사회복지관을 통해서 협조를 받았다. 또한 싱글크리스찬 3050 정기모임회(싱크모)의 회원들, 한부모 가정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자녀들은 이들 한부모를 통해서 전달된 질문지를 작성하고 일주일 후 수거 혹은 전달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4. 조사 도구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조사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조사 도구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성역할 정체감 척도(KSRI), 자기효능감 척도, 사회적 적응 척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작성된 설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인 한부모 가족의 한부모와 그들의 자녀, 두 유형의 질문지로 구성되어 실시되었다.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는 성, 연령, 친한 친구 유무, 학교 성적, 가족 수 및 형제 순위, 함께 살고 있는 가족, 한부모 가족 구성의 원인 및 연수, 경제 수준에 관한 총 10문항들로 구성하였으며, 한부모 가족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는 성, 연령, 학력, 종교, 자녀수, 직업, 근로형태, 주소득원, 월소득, 이혼 또는 사별 기간에 관한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성역할 정체감

본 연구에서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사용된 측정 도구로는 정진경(1990)이 개발한 한국형 성역할 검사(KSRI: Korea Sex Role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우리 사회의 성 고정관념을 기초로 하여 성역할 성격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양성성 이론에 입각하여 Bem(1974)이 고안한 성역할 검사(BSRI: Bem Sex Role Inventory) 제작 방식에 따라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의 세 영역별로 20문항씩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KSRI는 7점의 Likert식 척도로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5점의 Likert식 척도로 평가하도록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남성성 문항은 남녀 모두가 여성에게보다는 남성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긍정적 문항들로 구성되어지고, 여성성 문항은 남녀 모두가 남성에게보다는 여성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긍정적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양성성 문항은 남녀 모두가 성별과 관련지어서는 양성적이고, 자신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으로 표현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문항들로 구성되어지며, 그 특

성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특성, 나머지 반은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역할 정체감 척도의 하위 영역별 문항은 <표 - 5>, <표 - 6>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성역할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 척도의 신뢰도는 .88점이고, 부모의 성역할 정체감 신뢰도는 .82점으로 나타났다.

<표 - 5> 성역할 정체감 척도의 구성 및 신뢰도 (청소년 자녀)

척도의 구성		문 항 번 호	문항수	Cronbach's α	
성역할 정체감	양성성	3, 9, 15, 21, 27, 33, 39, 45, 51, 57	10	.79	.88
	남성성	1, 4, 7, 10, 13, 16, 19, 22, 25, 28, 31, 34, 37, 40, 43, 46, 49, 52, 55, 58	20	.74	
	여성성	2, 5, 8, 11, 14, 17, 20, 23, 26, 29, 32, 35, 38, 41, 44, 47, 50, 53, 56, 59	20	.78	
	미분화성	6, 12, 18, 24, 30, 36, 42, 48, 54, 60	10	.53	
계			60	-	

<표 - 6> 성역할 정체감 척도의 구성 및 신뢰도 (한부모)

척도의 구성		문 항 번 호	문항수	Cronbach's α	
성역할 정체감	양성성	3, 9, 15, 21, 27, 33, 39, 45, 51, 57	10	.60	.82
	남성성	1, 4, 7, 10, 13, 16, 19, 22, 25, 28, 31, 34, 37, 40, 43, 46, 49, 52, 55, 58	20	.73	
	여성성	2, 5, 8, 11, 14, 17, 20, 23, 26, 29, 32, 35, 38, 41, 44, 47, 50, 53, 56, 59	20	.77	
	미분화성	6, 12, 18, 24, 30, 36, 42, 48, 54, 60	10	.73	
계			60	-	

본 연구에서 분류 방식은 중앙치 반분법(Median Split Procedure)을 사용하며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의 4가지 성역할 정체감으로 분류된다. 전체 응답자 집단의 남성성, 여성성 점수들의 중앙치를 준거로 하여 남성성과 여성성 점수가 모두 높으면 양성성 유형(Androgyny Type), 남성성 점수가 높고, 여성성 점수가 낮으면 남성성 유형(Masculinity Type), 남성성 점수가 낮고, 여성성 점수가 높으면 여성성 유형(Femininity Type), 남성성과 여성성 점수가 모두 낮으면 미분화 유형(Undifferentiated Type)으로 분류하였다. 응답자의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를 산출하여 그 점수의 중앙값을 구했는데 전체 남성성 척도 점수의 중앙치는 3.35점, 여성성 점수의 중앙치는 3.35점이었다. 중앙치 반분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 3>과 같고, 성역할 정체감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은 <표 - 7>에 제시되어 있다.

여성성 점수

		중앙치 이상	중앙치 이하
남성성 점수	중앙치 이상	양성성 유형	남성성 유형
	중앙치 이하	여성성 유형	미분화 유형

<그림 - 3> 중앙치 반분법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유형 분류

< 표 - 7 > 성역할 정체감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

평균		성역할 정체감	점수 범위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남성성 점수 > 3.35 & 여성성 점수 > 3.35
		남성성	남성성 점수 > 3.35 & 여성성 점수 < 3.35
4.15	4.2	여성성	남성성 점수 < 3.35 & 여성성 점수 > 3.35
		미분화	남성성 점수 < 3.35 & 여성성 점수 < 3.35

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김홍규(2004)가 개발한 척도를 토대로 총 7문항으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추진 한다’, ‘시작한 일이 힘들더라도 계획했던 일은 끝까지 실행 한다’, ‘무슨 일이든지 계획을 잘 세우고 정확하게 처리한다’, ‘새로운 일이 너무 어려우면 배워서라도 해결한다’, ‘실패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한다’,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내가 해결해 보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항상 목표를 세우고 목표대로 잘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라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5점의 Likert식 척도로 평가하도록 재구성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자기효능감 척도의 신뢰도는 .73점이고, 부모의 자기효능감 척도의 신뢰도는 .72점이다.

4) 사회적 적응

‘사회적 적응’은 김홍규(2004)가 개발한 척도를 참고하여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은 ‘대인관계, 사회성, 학교생활 적응력, 의사소통, 자기관리 능력’ 등 5개 하위 요인으로 총 35문항, 5점 Likert식 척도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마다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본다.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 척도의 신뢰도는 .73점이다.

부모의 사회적 적응도 ‘대인관계, 사회성, 사회적 효능감, 의사소통, 자기관리 능력’ 등 5개 하위 요인, 총 35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부모의 사회적 적응 척도 또한 각 문항마다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본다. 한부모 가족 부모의 사회적 적응 척도의 신뢰도는 .83점이다.

< 표 - 8 > 자기효능감, 사회적 적응 척도의 구성

척도의 구성		문항수	Cronbach's α
청소년 자녀 자기효능감		7	.73
부모 자기효능감		7	.72
청소년 자녀 사회적 적응	대인관계	7	.73
	사회성	7	
	학교생활 적응력	7	
	의사소통	7	
	자기관리 능력	7	
부모 사회적 적응	대인관계	7	.83
	사회성	7	
	사회적 효능감	7	
	의사소통	7	
	자기관리 능력	7	

사회적 적응이라는 개념의 대상을 사람으로 정의 내릴 때는 개인과 그를 둘러싼 환경을 모두 포함하여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사회적 적응 특성을 측정하는데 있어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 건강과 적응을 위해 필요한 대인관계, 사회성, 학교생활 적응력, 의사소통, 자기관리 능력의 5개 요인을 사회적 적응의 하위 요인으로 정의하고, 부모의 사회적 적응 하위 요인으로는 대인관계, 사회성, 사회적 효능감, 의사소통, 자기관리 능력의 5개 요인으로 정의한다.

5. 자료 분석

연구 문제 및 척도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문제의 검증에 앞서, 척도 구성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한 뒤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문항을 요인 추출하여 최종 분석 과정에 선택하여 해석하였다. 구조화된 질문지 구성 중 성역할 정체감 척도와 자기효능감, 사회적 적응 척도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평균, 표준편차, 점수 범위, 신뢰도를 각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았다.

<연구 문제 1>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사회적 적응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 검증 방법으로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문제 2>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따른 사회적 적응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 검증 방법으로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문제 3>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 자기효능감, 사회적 적응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문제 4>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자료 분석은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IV.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 자기효능감, 사회적 적응 및 부모의 성역할 정체감, 자기효능감, 사회적 적응의 경향을 먼저 살펴보기 위해 기초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청소년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 자기효능감에 따른 사회적 적응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을 투입하고, 다음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성역할 정체감 및 자기효능감 그리고 부모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적응 변인을 투입하여 살펴보았다.

1. 조사대상자의 주요 변인의 일반적 경향

1)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 자기효능감, 사회적 적응 경향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 9>와 같다. ‘미분화’가 50.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양성성’이 25.5%이며, ‘여성성’ 12.5%, ‘남성성’ 1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역할 정체감에 관한 김은영(2001)의 연구 결과에서도 미분화 유형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양성성, 여성성, 남성성의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전체적으로 미분화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치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서 미분화가 높게 나타난 것은 가족 구조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의 과도기적 특성에 따라 성역할 정체감이 완전하게 형성되지 못한 시기이

기 때문에 아직 뚜렷한 성역할 정체감을 띄고 있지 않은 미분화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청소년 자녀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적응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이 3.16점(SD=.58), 사회적 적응은 3.13점(SD=.33)으로 모두 평균 3점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적응의 하위 변인별 경향을 보면, 대인관계가 3.43점(SD=.52)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기관리 3.19점(SD=.58), 학교 적응 3.16점(SD=.59), 의사소통 3.16점(SD=.54) 순으로 각각 평균보다 약간 높았다. 사회성 영역에서만 2.99점(SD=.62)으로 평균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적응의 하위 영역은 대인관계 영역이 3.43점(SD=.5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사회성 영역이 2.99점(SD=.62)으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종합해 보면,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적응 점수가 모두 평균 이상으로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사회적 건강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 표 - 9 > 청소년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적응 경향

(단위:점, N=198)

변인	전체		
	n	%	
성역할 정체감	양성성	51	25.5
	남성성	22	11.5
	여성성	25	12.5
	미분화	100	50.5
변인	M	SD	
자기효능감	3.16	.58	
사회적 적응	3.13	.33	
사회적 적응	대인관계	3.43	.52
	사회성	2.99	.62
	학교 적응	3.16	.59
	의사소통	3.16	.54
	자기관리	3.19	.58

2) 한부모 가족 부모의 성역할 정체감, 자기효능감, 사회적 적응 경향

한부모 가족 부모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대한 조사 결과는 < 표 - 10 >에 제시하였다. < 표 - 10 >에 따르면 한부모 응답자는 ‘미분화’ 32.0%, ‘양성성’ 31%의 순으로 미분화와 양성성이 비슷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남성성’ 19.5%, ‘여성성’ 17.5% 순으로 확인되었다. 한부모 가족 부모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적응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은 자기효능감이 3.32점(SD=.47), 사회적 적응은 3.31점(SD=.31)이며, 사회적 적응의 하위 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자기관리 영역이 3.48점(SD=.53)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하위 영역도 모두 평균 3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한부모 가족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적응이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 한부모 가족은 자신들의 가족 구조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건강한 심리적, 사회적 적응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조사대상자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양호한 중산층 이상이 표집되어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으므로 이 결과에 대한 조심스런 해석이 요구된다.

< 표- 10 > 부모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 자기효능감, 사회적 적응 경향

(단위:점, N=200)

변인	전체		
	n	%	
성역할 정체감	양성성	62	31.0
	남성성	39	19.5
	여성성	35	17.5
	미분화	64	32.0
변인	M	SD	
자기효능감	3.32	.47	
사회적 적응	3.31	.31	
사회적 적응	대인관계	3.27	.66
	사회성	3.24	.54
	사회적 효능감	3.25	.42
	의사소통	3.28	.48
	자기관리	3.48	.53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사회적 적응을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청소년 자녀는 대인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부모는 자기관리 요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청소년 자녀의 경우 중·고등학생이라는 점에 착안한다면 청소년기의 발달단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맥락 중의 하나가 교우 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 친구의 지지는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제공하고

영향을 받음으로써 적응 유연성을 촉진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의 경우에는 가장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는 40대가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직업과 관련하여 회사원 및 자영업 등의 관리직이 $\frac{2}{3}$ 정도를 차지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이나 생활 및 능력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관리 능력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 진다. 반면 청소년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서 사회성 영역이 낮게 나타난 것은 부모의 사별이나 이혼으로 인해 가족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2.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사회적 적응의 차이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사회적 적응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라 전체 사회적 적응($F=5.66$, $p<.01$)과 사회적 적응의 하위 영역인 사회성 영역($F=3.63$,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 11 >. 즉, 전체 사회적 적응에서는 성역할 정체감 유형이 여성성, 양성성인 집단이 남성성, 미분화 집단보다 사회적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성 영역의 경우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인 집단이 미분화 집단보다 사회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선행 연구(김미성, 1991; 김영희, 1990; 윤미현, 1994; 정순화·이경희, 1997)에서 양성성 성역할 정체감이 개인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사회적 성숙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로 양성의 성역할을 모두 가지고 있는 청소년 자녀가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여 사회적 적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에서 미분화 유형이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청

소년기의 과도기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선행 연구(전선영, 1981)에서 성역할 정체감 형성과 가족 내의 변인들과의 밀접한 관련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 표 - 11 > 청소년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사회적 적응 차이

(단위:점, N=200)

변인	분류	사회적 적응															사회적 적응		
		대인관계			사회성			학교 적응			의사소통			자기관리			M	SD	D
		M	SD	D	M	SD	D	M	SD	D	M	SD	D	M	SD	D			
성역할 정체감	양성성	3.58	.49		3.12	.69	A	3.20	.64		3.30	.65		3.19	.59		3.26	.42	A
	남성성	3.46	.36		3.07	.54	A	3.12	.46		3.18	.37		3.13	.68		3.11	.34	B
	여성성	3.52	.29		3.18	.47	A	3.21	.43		3.12	.50		3.38	.42		3.27	.24	A
	미분화	3.43	.60		2.85	.60	B	3.13	.63		3.10	.51		3.17	.58		3.04	.35	B
F값		2.63			3.63*			.22			1.68			1.06			5.66**		

* $p < .05$ ** $p < .01$ *** $p < .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실시 후 동일 문자 표기는 동일 집단을 뜻함.

3.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따른 사회적 적응의 차이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자기효능감 정도에 따른 사회적 적응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기효능감 정도에 따라 사회적 적응의 하위 영역인 의사소통

($t=3.85, p<.001$), 대인관계($t=2.54, p<.05$), 그리고 전체 사회적 적응($t=2.78,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 12 >. 즉, 자기효능감이 상(上)인 집단이 하(下)인 집단보다 의사소통, 대인관계, 전체 사회적 적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성공에 대한 확신과 목표의식이 보다 뚜렷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의사소통, 대인관계, 사회적 적응력이 보다 뛰어남을 보여준 결과라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적응도 용이하하며, 학업 성적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박영신·김의철, 2001; 박현주·조금호, 2003; 윤운성, 1998) 및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은 학업 성취, 대인관계, 학교생활의 적응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 김용래와 유효현(2002)의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경험이 풍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학습적 경험이 학교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개입되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 표 - 12 > 청소년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따른 사회적 적응 차이

(단위:점, N=200)

변인	사회적 적응										사회적 적응		
	대인관계		사회성		학교 적응		의사소통		자기관리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자기 효능감 ¹⁾	상	3.51	.50	3.05	.58	3.20	.59	3.28	.55	3.24	.52	3.19	.34
	하	3.32	.53	2.89	.63	3.13	.59	2.99	.47	3.11	.65	3.04	.39
t값	2.54*		.78		1.88		3.85***		1.52		2.78**		

* $p<.05$ ** $p<.01$ *** $p<.001$

1)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상, 하 집단 분류

4.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 자기효능감, 사회적 적응의 관계

성역할 정체감, 자기효능감, 전체 사회적 적응 및 사회적 적응의 하위 영역인 대인관계, 사회성, 학교 적응, 의사소통, 자기관리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 표 - 13 >과 같이 나타났다. 성역할 정체감은 자기효능감($r=.28, p<.01$), 전체 사회적 적응($r=.20, p<.01$) 및 하위 요인의 대인관계($r=.16, p<.05$), 의사소통($r=.15, p<.05$)에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성역할 정체감이 양성성일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고, 사회적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양성성 유형이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자기효능감은 전체 사회적 적응($r=.21, p<.01$)과 하위 요인의 대인관계($r=.34, p<.01$), 사회성($r=.21, p<.01$)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적응을 잘하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와 사회성도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대인관계는 학교 적응($r=.19, p<.01$), 의사소통($r=.21, p<.01$), 자기관리($r=.16, p<.05$), 전체 사회적 적응($r=.25, p<.01$)과 정적 상관을 학교 적응은 자기관리($r=.20, p<.01$), 전체 사회적 적응($r=.48, p<.01$)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대인관계를 잘 할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의사소통에 유연성을 발휘하며 자기관리 능력이 뛰어난을 의미하고, 전체적인 사회적 적응도 높음을 나타낸다. 또한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청소년들은 자기관리도 뛰어나며 사회적 적응도 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사회성($r=.37, p<.01$), 의사소통($r=.42, p<.01$), 자기관리 영역($r=.43, p<.01$)은 전체 사회적 적응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사회성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자기관리를 확실히 할수록 전반적인 사회적 적응에 유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Bem(1974)의 양성성 이론과 박진아(2001)의 학교생활 적응과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결과가 뒷받침하고 있으며, 학생의 사회적 능

력과 자기효능감의 유의미한 관계를 밝힌 강수진과 이숙(199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 표 - 13 > 청소년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 자기효능감, 사회적 적응의 관계

(N=200)

변인	성역할 정체감	자기 효능감	사회적 적응					사회적 적응
			대인 관계	학교 적응	사회 성	의사 소통	자기 관리	
성역할 정체감								
자기효능감	.28**							
사회적 적응	대인 관계	.16*	.34**					
	학교 적응	.13	.21**	.19**				
	사회성	.04	.04	.02	.03			
	의사 소통	.15*	.08	.21**	.03	.07		
	자기 관리	-.01	.08	.16*	.20**	.08	.14	
사회적 적응	.20**	.21**	.25**	.48**	.37**	.42**	.43**	

* $p < .05$ ** $p < .01$ *** $p < .001$

5.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 및 사회적 적응의 하위 변인을 설명하는 변인들을 파악하고자 먼저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1 >.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 및 각 하위 요인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 표 - 14 >에 제시하였으며, 다음으로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성별, 대인관계, 학교 성적, 경제수준, 학교 유형, 한부모 사유, 모부자가족)과 성역할 정체감, 자기효능감 및 부모의 자기효능감, 부모의 사회적 적응이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는 < 표 - 15 >로 나타내었다.

먼저 < 표 - 14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적응에 유의한 설명력을 가진 변인은 성역할 정체감($\beta=.22, p<.01$), 부모의 사회적 적응($\beta=.21, p<.01$), 청소년이 지각한 자기효능감($\beta=.16, p<.05$), 학교 유형($\beta=.15, p<.05$), 경제 수준($\beta=.14, p<.05$)으로 확인되었다. 즉, 청소년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이 양성성인 집단일수록, 부모가 사회적 적응을 잘할수록,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교 유형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일수록, 그리고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들은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적응의 21%를 설명하였다.

사회적 적응의 하위 영역 중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청소년 자녀의 자기효능감($\beta=.32, p<.01$)만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은 대인관계의 15%를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적응의 사회성 영역에는 청소년 자녀의 자기효능감($\beta=.21, p<.01$), 부모의 사회적 적응($\beta=.20, p<.01$)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청소년 자녀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부모의 사회적 적응이 높을수록 청소년 자녀의 사회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변인들은 조사대상자의 사회성을 1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적응의 학교 적응 영역에서는 학교 유형($\beta=.18, p<.01$), 성별($\beta=.15, p<.05$), 부모의 사회적 적응($\beta=.14, p<.01$)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청소년 자녀가 고등학생일수록, 여학생일수록 그리고 부모의 사회적 적응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변인은 학교 적응을 11%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적응의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경제 수준($\beta=.20, p<.01$), 부모의 자기효능감($\beta=.17, p<.05$)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변인은 의사소통을 1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적응의 자기관리 영역에는 청소년 자녀의 자기효능감($\beta=.21, p<.01$), 부모의 사회적 적응($\beta=.19, p<.01$), 경제력($\beta=.16, p<.05$)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자녀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부모의 사회적 적응이 높을수록, 그리고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자기관리 능력이 더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 변인들은 자기관리를 1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14 >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N=400)

변인	사회적 적응										사회적 적응	
	대인관계		사회성		학교 적응		의사소통		자기관리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배경변인												
성별 ¹⁾	.07	.08	.02	.02	.17	.15*	.01	.04	.01	.02	.06	.07
대인관계 ²⁾	.01	.03	.01	.01	-.17	-.14	.01	.01	-.01	-.03	-.04	-.05
학교 성적	-.01	-.02	-.05	-.05	-.00	-.01	-.01	-.05	.01	.02	-.06	-.08
경제 수준	.01	.01	.02	.03	.01	.01	.16	.20**	.14	.16*	.08	.14*
학교 유형 ³⁾	.01	.02	.00	.01	.02	.18*	.01	.02	.06	.08	.11	.15*
한부모 사유 ⁴⁾	.09	.10	.04	.06	.13	.04	.02	.05	.05	.05	.10	.13
모부자가족 ⁵⁾	.05	.06	.02	.02	.13	.11	-.01	-.03	.02	.02	.07	.09
청소년 자녀												
성역할 정체감 ⁶⁾	.08	.07	.15	.11	.14	.10	.11	.09	-.01	-.03	.19	.22**
자기효능감	.29	.32**	.23	.21**	.00	.01	.09	.10	.22	.21**	.10	.16*
부모												
자기효능감	.05	.06	-.14	-.15	-.10	-.11	.15	.17*	.01	.01	-.07	-.11
사회적 적응	.12	.07	.41	.20**	.27	.14*	.20	.11	.38	.19**	.24	.21**
R^2	.15		.10		.11		.10		.10		.21	
F값	2.99**		2.07*		2.08*		1.92*		1.89*		4.42***	
Durbin-Watson	1.86		1.91		1.87		1.88		1.79		1.84	

* $p < .05$ ** $p < .01$ *** $p < .001$

1) 성별: 남성=0, 여성=1 2) 친한 친구: 없다=0, 있다=1, 3) 학교 유형: 중학교=0, 고등학교=1

4) 한부모 사유: 이혼=0, 사별=1 5) 모부자가족: 부자가족=0, 모자가족=1

6) 성역할 정체감: 나머지=0, 양성성=1

위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먼저 배경변인 중 성별은 사회적 적응의 하위 요인인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 생활에 적응을 더 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 수준은 사회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의 하위 요인 중 의사소통, 자기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 수준이 높다고 지각한 청소년 자녀가 사회적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의사소통, 자기관리도 더 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 유형은 사회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의 하위 요인 중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자녀가 고등학생일수록 사회적 적응을 더 잘하며, 학교 적응도 더 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윤미현(1984)의 연구에서 여고생이 양성적일 경우 사회적 적응을 잘한다고 보고한 결과와 맥을 같이 하며,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경제수준이 좋을수록 사회 적응을 잘한다고 보고한 서지영(2003)의 연구가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성역할 정체감 또한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양성성인 집단이 다른 성역할 정체감 집단보다 사회적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양성성 유형일 경우 사회적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보고된 선행 연구들(김선정, 2002; 오윤자, 2003; 유가효, 1994; 윤미현, 1994)과 일치한 결과이다.

청소년 자녀의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의 하위 요인 중 대인관계, 사회성, 학교 적응, 자기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자녀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적응, 대인관계, 사회성, 학교 적응, 자기관리를 더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적응의 하위 요인인 의사소통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청소년 자녀가 의사소통에 더 유연함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사회적 적응은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의 하위 요인인 사회성, 학교 적응, 자기관리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부모의 사회적 적응이 높을수록 청소년 자녀 또한 사회적 적응, 사회성, 학교 적응, 자기관리를 더 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가족 환경의 변화와 가족 내 역할 등

을 한부모가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를 결정하고 이는 다시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의 적응 또한 중요하다고 시사하는 것이며, 자녀의 적응을 위해서는 부모의 적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고한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이삼연, 2002; 지은선, 2001).

다음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에 제시된 <표 - 15>와 같다. 우선,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회귀식에 먼저 투입한 결과 경제 수준과 학교 유형이 사회적 적응을 설명하는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자녀가 고등학생일수록 ($\beta=.16, p<.05$), 그리고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beta=.15, p<.05$)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가 사회적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은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 변량의 9%를 설명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들을 통제된 후 성역할 태도, 청소년 자녀의 자기효능감을 투입한 결과 성역할 정체감 ($\beta=.20, p<.01$), 학교 유형 ($\beta=.16, p<.05$), 경제 수준 ($\beta=.16, p<.05$), 자기효능감 ($\beta=.15, p<.05$)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청소년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이 양성성인 집단, 청소년 자녀가 고등학생일수록,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 자녀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가 사회적 적응을 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예측하는 설명력은 16%로 약간 상승되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성역할 태도 및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통제 한 후 부모의 자기효능감과 부모의 사회적 적응을 투입한 결과, 성역할 정체감($\beta=.22, p<.01$), 부모의 사회적 적응($\beta=.21, p<.01$), 청소년자녀가 지각한 자기효능감($\beta=.16, p<.05$), 학교 유형($\beta=.15, p<.05$), 경제 수준($\beta=.14, p<.05$)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이 양성성인 집단과 부모의 사회적 적응이 높을수록,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청소년 자녀가 고등학생일 경우, 그리고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예측하는 설명력은 21%로 상승되었다.

종합해 보면, 본 연구를 통해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성역할 정체감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성역할 정체감 형성에 초점을 둔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한부모 가족 부모의 사회적 적응 역시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적 적응을 위해서 이들 부모의 사회적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더불어 청소년 자녀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대한 학교나 지역사회는 지속적 관심이 요청된다. 한편, 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생들이 고등학생 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적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특히 중학생 시기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표 - 15 > 배경 변인, 성역할 정체감, 자기효능감, 부모 변인이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N=400)

변인	사회적 적응					
	Model I		Model II		Model III	
	B	β	B	β	B	β
배경변인						
성별 ¹⁾	.07	.10	.06	.07	.06	.07
대인관계 ²⁾	.03	.04	-.02	-.03	-.04	-.05
학교 성적	-.06	-.10	-.06	-.09	-.06	-.08
경제 수준	.08	.15*	.09	.16*	.08	.14*
학교 유형 ³⁾	.12	.16*	.12	.16*	.11	.15*
한부모 사유 ⁴⁾	.07	.10	.09	.12	.10	.13
모부자가족 ⁵⁾	.06	.09	.08	.10	.07	.09
청소년 자녀						
성역할 정체감 ⁶⁾			.17	.20**	.19	.22**
자기효능감			.09	.14*	.10	.16*
부모						
자기효능감					.07	.11
사회적 적응					.26	.21***
F	2.70*		3.97***		4.42***	
R ²	.09		.16		.21	

* $p < .05$ ** $p < .01$ *** $p < .001$

1) 성별: 남성=0, 여성=1 2) 친한 친구: 없다=0, 있다=1, 3) 학교 유형: 중학교=0, 고등학교=1

4) 한부모 사유: 이혼=0, 사별=1 5) 모부자가족: 부자가족=0, 모자가족=1

6) 성역할 정체감: 나머지=0, 양성성=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는 가족 형태의 하나인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이들 가족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에 대한 요약과 그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 가족의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 자기효능감, 사회적 적응의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 자녀의 경우,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서 미분화가 50.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양성성 25.5%, 여성성 12.5%, 남성성 1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과도기적 단계에 처해 있기 때문에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괴리 속에서 정체감이 정립되지 않으면 역할 혼돈을 가져올 수 있다. 이 시기에 정서적 안정과 바람직한 성역할 모델이 있으면 자신에 대한 통찰과 정체감을 갖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성역할이나 가치관의 확립에 있어 심한 갈등을 야기 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미분화 유형이 높게 나타난 것은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가족 구조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청소년기의 과도기적 특성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청소년 자녀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적응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은 자기효능감 3.16점(SD=.58)과 사회적 적응이 3.13점(SD=.33)으로 모두 중간 값인 3점 이상으로 나타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나 사회적 적응 능력이 전반적으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적응 척도의 하위 요인별 경향을 살펴보면, 대인관계가 3.43점(SD=.52), 자기관리 3.19점(SD=.58), 학교 적응 3.16점(SD=.59), 의사소통 3.16점(SD=.54)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가 교우 관계의 형성에 어려움을 느

까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 환경에 긍정적으로 임하고 있음과 타인들과의 의사소통에 좀 더 유연함으로써 사회적 적응의 경향성이 다소 높은 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의 경우는 성역할 정체감 유형이 미분화 32.0%와 양성성 31%로 비슷하게 높았으며, 남성성 19.5%, 여성성 17.5%의 순이었다. 이는 한부모 가족이 됨으로써 부의 역할과 모의 역할을 모두 담당해야 하는 과정에서 성역할과의 충돌 또는 성정체감의 혼란을 통하여 미분화 유형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며, 점차 상호 충족감을 줄 수 있는 통합된 성역할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리라 사료된다. 한부모 가족 부모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적응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은 자기효능감이 3.32점($SD=.47$), 사회적 적응은 3.31점($SD=.31$)으로 모두 평균 3점보다 높았으며, 사회적 적응의 하위 영역별 요인을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부모 또한 어떠한 일이 닦혔을 때에도 자신의 능력을 믿고 꾸준하고 자신 있게 처리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 및 환경에 대한 대처 능력 등이 사회적 적응의 경향성을 높이는 근원이 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한부모 가족 부모와 청소년 자녀 모두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적응의 점수가 중간 값 이상으로 나타나 중간 수준 이상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적응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한부모 가족의 부모와 자녀는 그들이 처한 환경 내에서 자신들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사회적 적응의 차이에 대한 결과는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서 여성성, 양성성인 집단이 남성성, 미분화 집단보다 사회적 적응($F=5.66$, $p<.0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적응의 하위 영역에서는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인 집단이 미분화 집단보다 사회적 적응($F=3.63$, $p<.05$)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는 성역할 태도가 사회적 적응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

사하고 있다. 이는 융통성 있는 성역할 태도, 즉, 남성성과 여성성 두 가지 성역할을 모두 가지고 양성성이 조화를 이루는 양성성 유형을 지닌 청소년 자녀가 폭넓은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사회적 적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 경향을 살펴본 결과 미분화 유형이 많은 분포를 나타낸 것은 청소년기의 과도기적인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적 적응과 관련하여 볼 때 성역할 정체감은 개인의 심리적 건강 및 적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성성 유형이 적응에 유리한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는 정신적, 사회적 성숙 등의 다양한 변화와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로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청소년기의 성장 발달이나 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지 경험할 수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성역할 정체감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족 내 변인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의 양육 태도가 양성성 정체감 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지 요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확대 실시하고, 부모 교육 또한 가족내외의 일과 생계유지로 인해 시간이 부족한 한부모를 위해 자녀에 대한 격려와 지지, 학업지원 행동 등 자녀에게 직접적인 영향 요인이 될 수 있도록 내실화에 초점을 맞춰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부모-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셋째,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자기효능감 정도에 따른 사회적 적응의 차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적응도 높게 나타나($t=2.78, p<.01$), 자기효능감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사회적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사회적 적응의 하위 요인별로 보면, 자기효능감을 상(上), 하(下) 집단으로 구분해 보았을 때 자기효능감을 높게 지각하는 집단이 의사소통($t=3.85, p<.001$) 및 대인관계($t=2.54, p<.05$)에서 더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자기효능감은 사회 속에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

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기 스스로 내리는 판단이므로 사회 속에서 살아 가는데 중요한 능력인 사회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가 자기효능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사회의 여러 상황에 대처 능력이 뛰어나 사회적 적응을 잘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청소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힘인 자기효능감을 키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들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과 다양한 방안 마련의 모색이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 자기효능감, 사회적 적응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역할 정체감은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적응에서, 사회적 적응의 하위 요인에서는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기효능감에서는 사회적 적응 및 사회적 적응의 하위 요인 중 대인관계와 사회성에서 정적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 적응의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대인관계는 사회적 적응 및 사회적 적응의 하위 요인인 학교 적응, 의사소통, 자기관리 영역에서, 학교 적응은 사회적 적응 및 하위 요인의 자기관리 요인에서, 사회성, 의사소통, 자기관리 영역은 전체 사회적 적응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문제 해결의 원동력이 되는 자아개념인 자기효능감이 성취 경험을 통해 향상된다고 볼 때, 다양한 성취 경험을 하도록 유도하는 양성성 정체감이 자기효능감 수준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처한 환경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대처하는 능력도 양성성 정체감이 사회적 적응과 연관됨을 보여주며, 행동의 성공적 수행 능력의 확신이 사회적 적응 능력과도 관련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학교 적응은 모든 청소년들의 생활이 대부분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큰 역할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적응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양성성 유형의 성역할 정체감 형성 및 자기효능감 수준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양육 부모 및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에게 지지자가 되어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개방적이고 융통적인 태도, 사회적 관계망의 확대, 그리고 적극성, 독립성, 자기 신뢰를 위한 격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섯째,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 자녀의 성역할 유형이 양성성인 집단, 부모의 사회적 적응이 높을수록,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일수록, 그리고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적응의 하위 영역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청소년 자녀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부모의 사회적 적응이 높을수록, 청소년 자녀의 사회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생일수록, 여학생일수록, 그리고 부모의 사회적 적응이 높을수록, 학교 적응을 더 잘하였으며,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더 원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녀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부모의 사회적 적응이 높을수록, 그리고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 관리 능력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한부모 가족의 부모가 사회적으로 적응을 잘할 때, 청소년 자녀 또한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긍정적인 요인을 형성하고 사회적으로도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부모 가족의 경제 수준은 청소년 자녀들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와 관련된 선행 연구(Amato, 1993)에서는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경우 이혼 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이혼에 이르게 하고, 부모의 이혼이 다시 자녀의 적응에 어려움을 준다고 지적하였고, Simon(1994)은 이혼 후 수입이 감소하면 특히 이혼모들의 경우, 경제적 압력을 받게 되고, 경제적 압력은 심리적 안

정을 저해하게 되어 정상적인 부모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며 결국 자녀의 적응을 어렵게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한부모 가족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자녀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부모의 심리적 불안을 통해 자녀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점에서 한부모 가족의 경제 수준이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부모 가족이 겪을 수 있는 문제 중의 하나인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소득 보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사소통은 가족의 응집과 적응의 패턴을 형성해 나가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할 때, 자녀 또한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라 보여진다. 위의 결과와 관련하여 청소년기의 사회적 적응에 있어서 청소년 자신의 개인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부모와의 관계와 부모의 심리적 요인 및 사회적 적응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여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한부모 가족이라는 가족 구조의 변화는 자녀의 적응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 부모가 적응을 잘할수록 자녀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한 가지 요인만이 아니라 개인의 기질적인 측면, 사회적 지원 체계의 정도, 경제적인 수준, 부모의 사회적 적응 능력 등 다양한 요인들이 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소년 자녀가 긍정적으로 사회적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학습 경험 및 부모나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사회적 지지 경험 등과 같은 요인들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들에게 기능적인 가족으로서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서 미분화가 높게 나타난 점과 양성성 유형이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을 높임에 따라 청소년 자녀의 성역할 유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형성되도록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기효능감 향상 및 자립심을 키우기 위한 면접·전화·집단 상담지원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의 사회적 지원이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지원에도 영향을 미치는바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해소 및 자기효능감 향상, 자립심, 재사회화를 위한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반 사항에 대한 지원도 제공해야 한다. 즉 기능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 전반에 대한 역량 강화 사업을 상담, 교육, 문화, 자조모임 등 내실 있는 지원 활동으로 수행함으로써 가족의 기능 유지 및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청소년 자녀들의 학업 성취, 심리적 특성, 자아개념, 사회적 적응 등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에서 경제적 극복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한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복지 자금의 지원, 경제적 자립 기반의 조성을 위한 국가적인 시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체계 및 복지 증진 서비스 등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한부모 가족 자녀들에게 또래 관계는 사회적 지지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경우 부담감과 중압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청소년 자녀들의 초기 적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 체계의 형성이 필요하다. 현재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자녀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지만 청소년 자녀들의 경우에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 또래관계를 활용

하여 한부모 가족의 초기 적응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가 필요하다.

또한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들이 보다 안정적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개인 요인, 가족 요인, 가족 외적인 요인으로 분류하여 한부모 가족 청소년들이 보다 더 사회적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개발과 복지 서비스의 개발뿐만 아니라 가족 상담, 부모 교육 등 가족에 대한 다양한 개입도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가 그 대상임에 따라 개별적이고도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한부모 가족의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족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가족의 문제 해결 기능과 역할 기능 그리고 정서적 관여 기능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인 자녀 양육 방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한부모 가족 자녀의 적응을 원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부모 가족 부모의 자기효능감이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하여 부모의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키기 위해 교육, 상담, 문화체험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을 운영 및 지원하는 방안과 지역 유관기관의 자원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취약 가족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지 및 자원 연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섯째, 가족의 외적·사회적 요인이다. 한부모 가족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한부모 가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보는 시각이 있다. 한부모 가족의 환경적 요인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시각 및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한부모 가족의 청소년 자녀들이 사회의 편견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하고 부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한부모 가족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자녀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고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욱 확산되고 활성화

화되어야 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한부모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다양한 가족의 일부로써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필요성도 있다.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자원을 찾기 위해 사회적 지원 체계를 탐색하고, 강화하며, 유지할 수 있는 상담 및 개입 프로그램들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부모 가족의 부모와 청소년 자녀가 모두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족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조사 대상의 대표성을 위하여 유의추출법에 입각한 조사를 진행하였지만 전체 모집단의 특성을 완벽히 반영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둘째, 후속연구에서는 심층적인 결과를 도출하는데 적합한 다양한 서베이 방법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질문지법 및 초점 집단 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 등을 함께 사용해 접근하길 기대한다.

셋째, 측정 도구상의 한계로서 본 연구에 사용된 요인 외에도 다른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의 분석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적용된 요인 이외의 다양한 척도의 분류 및 새로운 측정 도구의 개발로 보완된 후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성역할 정체감 및 심리적 특성 즉, 자기효능감은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부분이 더 많으며, 변화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한쪽 부모에게서 받는 것이지만 자녀에게 많은 지지와 격려를 해 준다면 바람직한 성역할 정체감 유형 및 건강한 자기효능감을 형성하고,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은 청소년들의 사회적 적응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강점을 이용하여 한부모 가족을 지

지하고, 더욱 힘을 키우는데 활용하는 원조 방법상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 확립 및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의 형성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적절히 잘 대처하여 안정적으로 그 사회의 표준에 따라 행동하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적응 능력을 키워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들이 바람직한 사회적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로서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강성희(1992). 아동의 스트레스 생활 사건과 적응에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문제 해결 기술의 역할.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수진·이 숙(1995). 아동의 자아효능감에 따른 사회적 능력. 가정과학연구, 5(5)
- 고성혜·한유진(1995). 편모가정 청소년의 가정환경에 대한 지각. 한국청소년 연구, 20호.
- 권영미(2000).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옥(1988).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통제신념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은(1997). 주말부부 어머니의 결혼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자(1990).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권력구조와 성역할 정체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생활문화연구, 4(4).
- 김남숙(1993).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직(1999). 문화적 맥락에서 본 개별성-관계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숙 외(2000).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생활 실태와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숙(2003). 학교 유형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과 양성 평등의식 비교.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성(1992). 성역할 정체감, 스트레스 및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정(2002). 초등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정체감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경(2001). 그룹홈 거주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숙(2003).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성역할 정체감 및 자기효능감과 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연(2005).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의 성역할 정체감과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양부모 가족 아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태(1988). 발달심리학. 서울: 범우사.
- 김영희(1990). 한국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과 학습된 무기력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용엽(1997). 고등학생의 성역할 정체감이 사회적 적응 및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원정(2004). 청소년 개인특성, 부모-자녀관계 및 또래관계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영(2001). 한국인의 성 고정관념에 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2007).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모자원 거주 청소년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숙(2008). 편모가족 아동에 대한 사회사업 실천 접근. 성평등연구, 4호, 가톨릭대학교 성평등연구소.
- 김종기(2005). 사회적 지지가 편부모 중학생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신(1996).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진희(1989). 부모-청소년 자녀간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경(2003). 결손가정 아동의 학교 적응 유연성과 관련된 보호요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주 외(2001). 한국가족의 변화와 여성의 역할 및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혜래(2003). 중·고등학생이 지각한 성역할정체성과 우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호은·박경자(2001). 청소년이 지각한 한부모의 자녀양육 태도와 자기효능감간의 관계. 연세교육과학. 49(4).
- 문선화(1999). 부자가족에서의 아동문제와 복지대책. 제10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민귀식(2002). 청소년의 성역할 고정관념 형성과 선행요인의 관계.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남정(2001). 아동의 성역할 정체감과 남녀평등의식간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정(1996).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성역할 정체감의 관계.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기종(2000).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자아효능감 및 학업성적간의 관계.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선(1985). 모의 직업 및 양육태도와 자아개념과의 관계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혜(2005).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아(2001). 청소년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 및 자기효능감과 우울간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명숙(1980).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가정의 내적 변인이 아동의 성역할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지영(2002). 부모이혼이 청소년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유연성 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지영(2003). 부모의 양육행동 및 여아의 정서조절능력이 여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혜전(1993).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 언어적 표출과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영혜(1984). 아동복지. 서울: 학문사.
- 손병규(2007). 결손가정 청소년들의 자존감이 대인관계와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양숙(2001). 결손가정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양식 분석.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은경(1994). 고등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진로 의사결정 유형간의 관련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아산사회복지재단(1997). 아동복지편람. 서울: 정문출판주식회사.
- 안민주(2004). 결손가정 아동과 정상가정 아동의 성역할 정체감 및 자아존중감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순자(1977). 자기성장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기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성부(2009).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안내.
- 연미희(1998).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간의 관계. 대한 가정학회지, 125, 111-122

- 오선옥(2001). 초등학생의 성격 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승환(2001). 결손가족 청소년의 적응 결정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부모 이혼·별거가족과 사망가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17.
- 오윤자(2003).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과 통제소재. 교육심리연구, 17(2), 315-330.
- 오은순(1997).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우희정(1992).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효능감. 논문집, 1(1), 광주대학교민족문화예술연구소.
- 유가효(1994). 아동 및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과학논집, 20(2).
- 유안진·이점숙·서주현(2004). 청소년의 부모양육행동 지각과 학교 적응과의 관계. 학국가족관계학회지, 9(3), 161-180
- 유효현(2001).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 및 학교 적응간의 관계 분석.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미현(1984). 여고생의 성 역할 정체감과 자아개념 및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병철(1998). 편부모가족 자녀의 생활실태 및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경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서영(1999).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운성(1998). 자기효능감의 관련 변인 탐색. 교육연구, 14(1), 공주대학교 교육연구소.
- 은주영(2002).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음정자(1993).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와 성역할 정체감 및 태도와의 관계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건용(1994). 결손가정 청소년의 문제점과 그들을 위한 서비스 실태에 관한 연구-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송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희(1998). 결손가정 학생과 정상가정 학생의 자아개념 및 성격 특성 비교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영(1997). 부모의 양육 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순(2006). 한부모 가정과 양부모 가정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비교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선(2001). 해외입양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삼연(2002). 이혼가정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0권, 37-64
- 이소희 외(2003).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서울: 양지사.
- 이순영(2003). 아버지의 양육 태도가 여대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역할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애리사(2001). 일부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의 성 정체감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애재(2000). 편부모가족 기능 요인에 따른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승주(2004).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의 심리사회적 적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연식(2006).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남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정순(1999). 결혼가정 아동의 성역할 정체감과 대인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은진(1991). 아동의 성역할 발달에 영향을 주는 사회 환경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 령(2002). 중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소성(2004). 일반 청소년과 결혼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도와 심리사회적 성숙도와의 비교.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순화·이경희(1997), 아동의 성역할 태도와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5(3).
- 정진경(1987). 성역할 연구의 양성적 시각. 한국여성학, 3, 132-160.
- _____ (1990). 한국 성역할 검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1), 82-92
- 정진영(1993). 이혼 실태와 이혼가정 자녀들의 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1), 81-108.
- 정현숙(1993). 부모의 이혼에 따른 자녀들의 적응. 아동학회지, 14(1), 59-75
- 정현숙, 유계숙(2001). 가족 관계. 서울: 학지사.
- 정홍섭(1987). 가족 관계가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부산여대논문집, 22(1).
- 정희정(2004). 한부모 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인희(2004). 모자시설 아동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홍식, 김인숙, 김혜란, 김혜련, 신은주(2008). 가족복지학. 서울: 학지사
- 전선영(1981). 어머니의 성구분 역할개념과 아동의 성역할 자아개념 형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은선(2001).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과 요인. 고향논집, 29, 237-255.
- 진희경(1998). 부모에 대한 애착과 성역할 정체감 및 결혼만족도의 상관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순호(2003). 한부모 가정 아동 및 부모부재 가정 아동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가톨릭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은영(2001). 부모의 언어적 공격성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이(2001). 직장여성의 성역할 정체감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선애(1984). 부친부재가 자녀의 정서불안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선우(2006). 한부모 가족 초등학생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선화(2000). 편부모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또래집단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족복지학, 6, 187-214.
- 최성윤(2000). 또래관계와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여고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여성개발원(1984). 편부모가족의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 한미현(2005). 어머니의 대상관계 수준과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정환(1993).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동향과 문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2(1).
- 홍영서(2001). 유치원 여교사의 성역할 개념 성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chenbach, T. M. (1978). The child behavior profiles: I Boys aged 6–11.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3).
- Allport, G. W.(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Amato, P. R. & Keith, B(1991). Parental divorce and adult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53, pp.43–58.
- _____ (1993). Children's adjustment to divorce: Theories, hypotheses, and empiric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23–38.
- _____ (1999). Children of Divorced Parents as Young Adults, In by Hetherington, E.M. *Coping With Divorce, Single Parenting, and emarriage: A Risk and Resilliency Perspective*, University of Virginia, pp. 147–161.
- Bandura, A.(1977a). Social learning theory. England Cliffs. NJ: Pretice Hall.
- _____ (1977b).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ro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ivew*. 84, 191–215.
- _____ (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 Hall.
- _____ (1994). Self-efficacy. In V. S. Ramachaudran(Ed.), *Encyclopedia of human behavior*, 4, (pp. 77–81). New York: Academic Press.
- _____ (1997). *Social learning Theory*. N. J.,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 Hall.
- Bem, S. L.(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Bem, S. L.(1985). Androgyny and gender schema theory: Conceptual and empirical integration, In T. B. Sonderegger(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Lincoln, N 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Block, J. H.(1973). Conceptions of sex role: Some cross-cultural and longitudin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28, 512-526.
- Demo, D. & Acock, A.(1988). The Impact of Divorce o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619-648
- Erikson, E.(1968). *Identif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albo. T. & Poston, D. L., Jr.(1993). The academic, personailty, and physicl outcomes of only children in China. *Child Development* 64(1).
- Freud, S.(1952). *A General Introduction to Psychology-Analysis*. N Y : Washington Square Press.
- Germain, C. B.(1979). *Social Work Practice : People and Environments*, N. Y.: Columbia University Press.
- Hall, E., M. E. Lamb & M. Permutter(1986), *Child Psychology Today*, N. Y.: Random House.
- Hess, R. D., & Hendel, G.(1985). The family as a psychosocial organization, in Handel (eds), *The psychosocial of the family*, New York: Aldine, pp.10-24.
- Hetherington, E. M.(1989). Coping with family transitions: winners, losers, and survivors, *child Development*, 60.
- _____ (1999). Should we stay together for the ㅓ of the childern? In E. M. Hethering-ton(Ed). *Coping with divorce, single parenting, and remarriage*, P. 93-116, Mathwah, N J: Erlbaum.

- Hurlock, E. B.(1964). *Child Development*. N. Y.: McGraw Hill.
- _____ (1978). Influence of Parental Attitude on Family Relations. *Child Development* 6. McGraw-Hill.
- Kohlberg, L. (1966). A cognitive-developmental analysis of children's sex-role concepts and attitudes. In E.E. Maccoby (Eds.), *The development of sex difference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Moorehouse, M. J.(1991). Linking maternal employment patterns to mother-child activities and children's school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7(2).
- Mussen, P. H.(1969). Early sex-role development, In D. A. Goslin(Ed).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Chicago: Rand McNally and Company.
- Mussen, P. H. J. J. Conger, J. Kagon(1969).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N. Y. : Harper and Row.
- Papalia, D. E · Olds. S. W. & Feldman. R. D.(박성연(역)). (1991). 인간발달 I : 아동발달. 교육과학사.
- Parker-Cohen. N. Y., & R. Q. Bell.(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 and social adjustment to peer.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 Raschke, Helen J., and Raschke, Vernon J.(1979). Family conflict and the children's self-concep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41, pp.367-374.
- Slee, P. T.(1966) The relation of temperament and other factors to children's kindergarten adjustment. *Child Psychology and Human Development*. 17(1). pp104-112

Spence, J. T., Helmreich, R., and Stapp, J.(1975). Ratings of self and peers on sex role attributes and their relation to self-esteem and conceptions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1), 29-39.

ABSTRACT

Study in social adaptation of Adolescents of Single-Parent Families – Centering on Gender-Role identity and Sense of Self-Efficiency –

Woo Mee Hyang

Dep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single parent families with teenage children, which is one of the biggest changes in the modern society. Single-parent families are becoming more common with the social changes, but Korean society still classifies them as dysfunctional families. This study focuses on the family function of single-parent families to examine social adaptation of adolescents of single-parent families.

During the teenage years, children grow and develop by interacting with the environments within and without their family. They are faced with social circumstances and act in accordance with the social norms by utilizing the resources of their family, school, peers and community,

thereby developing their ability to cope with the surroundings. And this study is based on the view that different types of gender–role identities and sense of self–efficiency of the teenagers from single–parent families could influence differently in their adaptation to society.

The study was conducted on 200 single parents and their teenage children residing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400 in total. The question naire from Korea Sex Role Inventory(KSRI, 1990), which was developed by Jeong Jin–gyeong was used to categorize the sex role identity. And their sense of self–efficiency in relation to social adaptation was measured based on Kim Hong–Gyu’s questionnaire for diagnosing psychological maturity and social maturity developed in 2004. As for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adaptation, the psychological maturity test (2004) by Kim Hong–gyu was referred to in order to create the new questionnaire. Furthermore, the SPSS 12.0 Windows program was used for the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t–test, ANOV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the general trend of gender–role identity, sense of self–efficiency and social adaptation of adolescents of single–parent families are as follows: the types based on gender–role identities of the adolescents from single–parent families are undifferentiated, bisexual, masculine and feminine identities in sequence of higher proportion. And as for the gender–role identity types of parents from single–parent families, the types of undifferentiated and bisexual identities take similarly high proportion, followed by masculine and feminine identities.

In the tests for sense of self-efficiency and social adaptation, both the adolescents and parents from single-parent families marked more than average scores in both tests, which indicates the level of their soundness in psychological and social context is more than average in society.

Second, the groups of feminine and bisexual gender-role identity types of adolescents of single-parent families appear to adapt better in society than groups from masculine and undifferentiated types.

Third, when the sense of self-efficiency of adolescents of single-parent families is high, they appear to adapt in society better than those with low sense of self-efficiency.

Four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role identities, sense of self-efficiency and social adaptation, sense of gender-role identities show static relationship with sense of self-efficiency and social adaptation, whereas the sense of self-efficiency shows static relationship with social adaptation.

Fifth, the ultimate influencing factors for better social adaptation of adolescents of single-parent families appear to be: higher economic standard, senior secondary students rather than junior secondary students, bisexual group of gender-role identities, and higher sense of self-efficiency of adolescents. The most positive influential factors are bisexual type of gender-role identity and higher social adaptation ability of the parents, and they are followed by the positive sense of self-efficiency of adolescents, being in senior high school and the economic standard in sequence.

To summarize the study, the factors of bisexual type of gender-role

identity, sense of self-efficiency of the adolescents and the parents' social adaptation ability are proved to be great factors in the social adaptation of adolescents from single-parent families.

< 부록 - 1 >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인들간 상관관계

(N=400)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1																
2	-.07	1															
3	-.08	-.09	1														
4	.12	-.05	-.13	1													
5	.01	-.05	-.01	.03	1												
6	-.12	-.05	.06	.02	.05	1											
7	.18*	.03	.02	.02	.06	-.15*	1										
8	-.01	.23**	-.12	.03	.06	-.11	-.05	1									
9	.12	.12	.04	.04	.04	-.11	-.02	.03	1								
10	.05	.02	-.06	.15*	.07	-.07	.08	.11	.22**	1							
11	.05	.03	-.08	.14	.02	-.02	.09	-.11	-.11	.29**	1						
12	.05	.08	-.02	.03	.02	.07	.07	.16*	.34**	.09	.05	1					
13	.04	.08	-.05	.00	.04	.03	.03	.13	.21**	.20**	.17*	.19*	1				
14	.17*	-.10	-.02	.05	.16*	-.02	.12	.04	.09	-.04	.14	.04	.03	1			
15	.06	.05	-.02	.15*	.01	.03	-.01	.14	.07	.18*	.12	.21**	.02	.05	1		
16	.03	-.02	.03	.12	.07	.06	.05	-.01	.18*	.02	.16*	.16*	.21**	.07	.10	1	
17	.13	.04	-.11	.18*	.16*	.05	.09	.20**	.21**	.04	.22**	.25**	.48**	.39**	.38**	.43**	1

* $p < .05$ ** $p < .01$ *** $p < .001$

1. 성별 2. 친한 친구 유무 3. 학교 성적 4. 경제력 5. 학교 유형 6. 한부모 사유
 7. 모부자가족 8. 성역할 정체감 9. 청소년 자녀 자기효능감 10. 부모 자기효능감
 11. 부모 사회적 적응 12. 대인관계 13. 사회성 14. 학교 적응 15. 의사소통
 16. 자기관리 17. 청소년 자녀 사회적 적응

설 문 지 (청소년용)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하의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과 자기효능감이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로 마련된 것입니다.

설문지에 응답해 주신 내용은 본 연구이외에는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본 연구의 자료로만 사용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지의 내용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평소에 느끼고 생각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다소 힘이 드시더라도 본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의 있게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 2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 김 태 현
연구 자 : 우 미 향

조사 작성일	2009년 월 일	조사연구원	
조사 지역 (장소, 기관)			

1. 다음은 개인의 성격적 특성을 표현한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믿음직스럽다.					
2. 섬세하다.					
3. 융통성이 있다.					
4. 과묵하다.					
5. 어질다.					
6. 성숙하지 못하다.					
7. 남성적이다.					
8. 친절하다.					
9. 생각이 깊다.					
10. 강하다.					
11. 온화하다.					
12. 염세적이다.					
13. 자신감이 있다.					
14. 부드럽다.					
15. 이해심이 많다.					
16. 털털하다.					
17. 상냥하다.					
18. 웅고집이 있다.					
19. 박력이 있다.					
20. 감정이 풍부하다.					
21. 성실하다.					
22. 독립적이다.					
23. 깔끔하다.					
24. 심술궂다.					
25. 씩씩하다.					
26. 따뜻하다.					
27. 부지런하다.					
28. 야심적이다.					
29. 인정이 많다.					
30. 부주의하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1. 근엄하다.					
32. 다정다감하다.					
33. 솔직하다.					
34. 의욕적이다.					
35. 차분하다.					
36. 독선적이다.					
37. 자신의 신념을 강조한다.					
38. 알뜰하다.					
39. 겸손하다.					
40. 의지력이 강하다.					
41. 유순하다.					
42. 불안정하다.					
43. 대범하다.					
44. 민감하다.					
45. 진지하다.					
46. 집념이 강하다.					
47. 순종적이다.					
48. 신경이 날카롭다.					
49. 의리가 있다.					
50. 꼼꼼하다.					
51. 분명하다.					
52. 지도력이 있다.					
53. 암전하다.					
54. 화를 잘 낸다.					
55. 결단력이 있다.					
56. 여성적이다.					
57. 활발하다.					
58. 모험적이다.					
59. 씩씩하다.					
60. 불건전하다.					

II. 다음은 자기효능감 검사 문항입니다.

귀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추진한다.					
2. 시작한 일이 힘들더라도 계획했던 일은 끝까지 실행한다.					
3. 무슨 일이든지 계획을 잘 세우고 정확하게 처리한다.					
4. 새로운 일이 너무 어려우면 배워서라도 해결한다.					
5. 실패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한다.					
6.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내가 해결해 보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7. 항상 목표를 세우고 목표대로 잘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III. 다음은 사회적 적응 검사 문항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주변에는 나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언니, 동생들이 많다.					
2.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나를 도와 줄 친구가 많은 편이다.					
3. 만나는 사람, 장소, 분위기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한다.					
4.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5. 동네에서 웃어른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					
6. 다른 사람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시간관념이 철저하다.					
7. 나는 나 때문에 친구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 자신에게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의 모임이 즐겁기 때문에 참여하려고 노력한다.					
2.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가깝게 지낸다.					
3.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없다.					
4. 취미와 종교가 다른 친구들과 친하게 지낸다.					
5. 나는 학교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					
6. 전학이나 이사를 가도 주위 친구들과 빨리 사귈다.					
7.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낯선 사람에게도 거리낌 없이 질문한다.					

■ 자신에게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선생님과 자유로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2. 학교에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3. 공부가 아니더라도 친구들이나 선생님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4. 난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대부분 이해한다.					
5. 특별활동 시간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6. 학교 행사에 흥미를 갖고 참여한다.					
7. 학교에서 해 오라는 숙제나 준비물을 잘 챙긴다.					

■ 자신에게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람들과 만남에서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여 자신 있게 말한다.					
2. 말을 할 때 상대방을 바라보며 이야기 한다.					
3. 말을 하면서 감정과 상황에 따라 얼굴 표정을 달리한다.					
4. 친구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듣고 그 이야기에 어울리게 반응한다.					
5.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꼭 물어본다.					
6.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주위사람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한다.					
7. 중요한 일을 할 때 그 일의 결과를 생각한다.					

■ 자신에게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고 일어나는 것을 내 스스로 한다.					
2. 하루를 계획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3. 용돈을 꼭 필요한 곳에 활용한다.					
4. 미래 목표를 정해 놓고 현재의 생활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5. 하기 싫거나 옳지 못한 행동은 친구들이 권해도 하기 싫다.					
6.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친구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7. 분위기에 휩쓸려 일시적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일은 없다.					

IV. 다음은 여러분의 개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내용을 적거나
V표 해 주십시오.

1. 몇 학년입니까? ()학년
2. 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3. 친한 친구는 몇 명입니까? ① 있다 ()명 ② 없다
4. 내가 생각하는 나의 학교 성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상 ② 중 ③ 하
5. 가족 수는 모두 몇 명입니까? ()명
6. 나는()남 ()녀 중 ()째이다.
7. 어른 중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같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표시해
주세요.)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외)할머니 ④ (외)할아버지
⑤ 친척 어른(삼촌, 고모, 이모 등) ⑥ 어른과 함께 살고 있지 않다.
8. 아버지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돌아가셨다. ② 이혼하셨다.
9. 언제부터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따로 살게 되었습니까?
()살 때부터입니다.
10. 내가 생각하는 우리 집의 경제 수준은 어떠합니까?
① 상 ② 중 ③ 하

설 문 지 (부모용)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하의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과 자기효능감이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로 마련된
것입니다.

설문지에 응답해 주신 내용은 본 연구이외에는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본 연구의 자료로만 사용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지의 내용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평소에 느끼고 생각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다소 힘이 드시더라도 본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의 있게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 2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 김 태 현
연구 자 : 우 미 향

조사 작성일	2009년 월 일	조사연구원	
조사 지역 (장소, 기관)			

1. 다음은 개인의 성격적 특성을 표현한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믿음직스럽다.					
2. 섬세하다.					
3. 융통성이 있다.					
4. 과묵하다.					
5. 어질다.					
6. 성숙하지 못하다.					
7. 남성적이다.					
8. 친절하다.					
9. 생각이 깊다.					
10. 강하다.					
11. 온화하다.					
12. 염세적이다.					
13. 자신감이 있다.					
14. 부드럽다.					
15. 이해심이 많다.					
16. 털털하다.					
17. 상냥하다.					
18. 웅고집이 있다.					
19. 박력이 있다.					
20. 감정이 풍부하다.					
21. 성실하다.					
22. 독립적이다.					
23. 깔끔하다.					
24. 심술궂다.					
25. 씩씩하다.					
26. 따뜻하다.					
27. 부지런하다.					
28. 야심적이다.					
29. 인정이 많다.					
30. 부주의하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1. 근엄하다.					
32. 다정다감하다.					
33. 솔직하다.					
34. 의욕적이다.					
35. 차분하다.					
36. 독선적이다.					
37. 자신의 신념을 강조한다.					
38. 알뜰하다.					
39. 겸손하다.					
40. 의지력이 강하다.					
41. 유순하다.					
42. 불안정하다.					
43. 대범하다.					
44. 민감하다.					
45. 진지하다.					
46. 집념이 강하다.					
47. 순종적이다.					
48. 신경이 날카롭다.					
49. 의리가 있다.					
50. 꼼꼼하다.					
51. 분명하다.					
52. 지도력이 있다.					
53. 암전하다.					
54. 화를 잘 낸다.					
55. 결단력이 있다.					
56. 여성적이다.					
57. 활발하다.					
58. 모험적이다.					
59. 씩씩하다.					
60. 불건전하다.					

II. 다음은 자기효능감 검사 문항입니다.

귀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추진한다.					
2. 시작한 일이 힘들더라도 계획했던 일은 끝까지 실행한다.					
3. 무슨 일이든지 계획을 잘 세우고 정확하게 처리한다.					
4. 새로운 일이 너무 어려우면 배워서라도 해결한다.					
5. 실패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한다.					
6.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내가 해결해 보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7. 항상 목표를 세우고 목표대로 잘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III. 다음은 사회적 적응 검사 문항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주변에는 나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언니, 동생들이 많다.					
2.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나를 도와 줄 친구가 많은 편이다.					
3. 만나는 사람, 장소, 분위기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한다.					
4.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5. 동네에서 웃어른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					
6. 다른 사람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시간관념이 철저하다.					
7. 나는 나 때문에 친구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 자신에게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의 모임이 즐겁기 때문에 참여하려고 노력한다.					
2.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가깝게 지낸다.					
3.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없다.					
4. 취미와 종교가 다른 친구들과 친하게 지낸다.					
5. 나는 학교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					
6. 전학이나 이사를 가도 주위 친구들과 빨리 사귄다.					
7.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낯선 사람에게도 거리낌 없이 질문한다.					

■ 귀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어떤 사람이 보고 싶으면 내가 먼저 전화를 하거나 그 사람에게 간다.					
2. 사귀기 어려운 친구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귈다.					
3. 회사나 모임 활동에서 나는 꼭 필요한 인물이다.					
4. 내 의견에 친구들이 따라 주는 경우가 많다.					
5.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잘한다.					
6. 친구들이 다투거나 갈등상태에 있을 때 화해시키는 역할을 잘한다.					
7. 내 자신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 귀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람들과 만남에서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여 자신있게 말한다.					
2. 말을 할 때 상대방을 바라보며 이야기 한다.					
3. 말을 하면서 감정과 상황에 따라 얼굴 표정을 달리한다.					
4. 친구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듣고 그 이야기에 어울리게 반응한다.					
5.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꼭 물어본다.					
6.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주위사람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한다.					
7. 중요한 일을 할 때 그 일의 결과를 생각한다.					

■ 귀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취침과 기상 등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2. 하루를 계획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3. 용돈 또는 생활비를 꼭 필요한 곳에 활용한다.					
4. 미래 목표를 정해 놓고 현재의 생활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5. 하기 싫거나 옳지 못한 행동은 친구들이 권해도 하기 싫다.					
6.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친구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7. 분위기에 휩쓸려 일시적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일은 없다.					

